NOROO

NOROO 80년의 記錄

1945 – 2025



나의 조국을 위하여

NOROO 80년의 記錄



노루 80주년 온라인 역사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NOROO의 80년 역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945 – 2025

나의 조국을 위하여

NOROO 80년의 記錄

1945 - 2025



“나의 조국을 위하여”

NOROO의 창업주 한정대 회장은 사업을 구상하면서 ‘나의 조국을 위하여’라는 말에 드러나듯, 사업보국의 신념을 품었다. 그에게 기업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도구였다. 훗날 그는 이 원칙을 이렇게 설명했다.

“기업은 소유나 부의 축적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 사소한 이익보다는 오로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더 큰 목표를 위해 경제 부흥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 말은 단지 한 기업인의 신조가 아니라, NOROO가 걸어온 80년 여정의 시작이자 존재 이유였다. 조국을 위해 시작한 창업주의 뜻은 지금도 NOROO의 모든 색과 기술, 그리고 구성원 속에 스며들어 있다.

창업주 **한정대** 회장



CONTENTS

Vision Interview 018
한영재 회장이 말하는 NOROO의 미래

Moments Through 80 Years 022
사진으로 보는 NOROO의 80년 발자취

- 1945—1966 창업과 성장기반 마련 024
- 1967—1988 경쟁력 강화와 고도성장 실현 028
- 1989—1999 전문화·세계화를 통한 도약 032
- 2000—2013 새로운 도전과 혁신 036
- 2014—2025 신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백년기업으로 040

NOROO, The New Chapter 044
지속가능한 미래소재기업으로 나아가다

1. 농생명 분야 신사업에 매진하다
   - NOROO의 신성장동력, 농생명 분야로 진출 046
   - 노루기반과 더기반의 지속적 사업 확장 048
   - 더기반,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 연구·개발로 경쟁력 강화 050
   - 기반테크, 꾸준한 사업 확대로 농생명 분야 선도 053

2.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현하다
   - 컬러 비즈니스와 아트 컬래버레이션의 강화 056
   - 미래 소재 3HP 상용화 연구로 바이오사업 진출 062
   -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의 상용화와 시장 선점 066
   - 친환경·고기능성 제품 및 기술개발 가속화 068
   - 자회사 간 탄탄한 밸류 체인 구축 071
   - 아시아·유럽·중동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 구축 074
   - 한영재 회장의 국가품질경영대회 금탑산업훈장 수훈 076

3. ESG경영 가속화로 백년기업에 이르다
   - ESG경영의 선도적 도입과 활성화 078
   - ‘컬러’와 ‘상생’을 중심에 둔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 080
   - 창립 80주년을 맞은 NOROO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 084

Our Vision 086
석유화학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Chronology 088
80년 연표

색으로 그린 80년, 함께 만드는 내일

1945년 설립된 NOROO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2025년 10월 31일 안양 본사에서 8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색으로 그린 80년, 함께 만드는 내일'을 주제로 열린 행사는 창업정신을 되새기고 새로운 비전을 전 임직원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다. NOROO는 지난 80년 동안 정밀화학 분야를 선도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과 글로벌 확장을 계속해서 이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백년기업'을 향한 도약을 실현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청년 NOROO'입니다

1945년, '나의 조국을 위하여'라는 창업정신을 품고 첫발을 뗀 NOROO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해온 그 여정의 중심에는 항상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80년이라는 시간은 개인에게는 결코 짧지 않지만, 기업의 세계에서 우리는 여전히 '청년 NOROO'입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실패'라는 각오로, 지금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노루가족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술이라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균형 잡힌 사업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NOROO의 기술이 인류의 내일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NOROO의 가장 큰 저력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지는 '사풍(社風)'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빠른 실행력, 건강한 조직문화는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IMF외환위기, 안양공장 화재 등 숱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켰습니다. 자랑스러운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20년이며, 회사의 영속성은 구성원의 열정과 노력, 사명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제는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합시다.

- 한영재 회장 창립 80주년 기념사 일부



















창립 80주년 기념식은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안양 본사는 물론 북미·동남아 등 해외 주요 계열사에도 동시 송출됐다. '색으로 그린 80년, 함께 만드는 내일' 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기반의 글로벌 통합 행사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지주회사인 노루홀딩스를 비롯해 노루페인트, 노루오토코팅, 노루로지넷, 노루케미칼, 노루알앤씨 등이 참여했다.

감각적인 모션 그래픽 연출을 통해 NOROO의 기술 혁신과 컬러 개발 영상 등이 상영됐다. 장기근속자 시상은 헌정 영상과 인터뷰를 결합한 서사형 구성으로 단순한 호명을 넘어 개인의 여정과 그룹의 역사를 연결하며 임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기념식 현장에 마련된 히스토리 존에서는 창립의 색, 성장의 색 등 '색'에 맞춰 표현한 NOROO그룹의 80년 역사를 만나볼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80주년을 맞이해 발간되는 기업의 역사책인 사사(社史)도 전시됐다.

NOROO 한영재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창업정신인 '기술 기반의 사업보국(事業保國)'을 바탕으로 한 미래 100년 전략을 제시했다. 바이오 기반 고부가가치 신사업 전환, 글로벌 리스크 대응과 재무 건전성 강화 그리고 기술혁신을 축으로 한 ESG 경영 고도화 등이 핵심 내용이며, 특히 석유 기반에서 산업용 화이트 바이오 중심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80년간의 성과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NOROO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은 자리였다. 앞으로도 기술 혁신과 글로벌 확장을 통해 '100년 기업'을 향한 도약을 이어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짐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노루 80주년 온라인 역사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NOROO의 80년 역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창립 80주년 기념 주요 활동

창립 80주년을 맞은 NOROO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와 마케팅 활동의 다각화를 위해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기고자 했다. 이를 위해 NOROO 전용 서체를 개발하고, 심벌을 재정립하며, 노루페인트 공통 용기 패키지 디자인을 새롭게 선보였다. 일관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유지함으로써 NOROO의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이끌어가고자 하며, 이번 활동은 일회성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 NOROO는 다가올 100년 동안에도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자 한다.

1. 전용 서체 개발

전용 서체는 한 기업의 문화와 브랜드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고유한 자산이자,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번에 개발한 전용 서체 '노루 프론티어' 4종은 부드럽지만 강인한 이미지를 지닌 서체로, 전통적이면서도 도전적인 NOROO의 기업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담아냈다. 향후 각 계열사의 CI, 슬로건 등에 적용해 그룹의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해 나갈 예정이다.

| NOROO 프론티어 4종: 제목용 서체(세리프) 2종 + 본문용 서체(산스) 2종

Heavy
NOROO 프론티어 세리프

Bold
NOROO 프론티어 산스

Extrabold
NOROO 프론티어 세리프

Regular
NOROO 프론티어 산스

| 전용 서체 적용 전·후 계열사 조합형 비교

NOROO 노루홀딩스
NOROO 노루페인트

▶

NOROO 노루홀딩스
NOROO 노루페인트

| 전용 서체 다운로드

노루 전용 서체 홍보&소개영상 보러가기

노루 전용 서체 다운로드 링크 바로가기

<전용 서체 설치안내>

*** 윈도우 운영체제 사용자 :**
링크 내 TTF 파일 다운로드 - 로컬디스크(C 드라이브) > Windows > Font 폴더 내 복사

*** iOS(매킨토시) 사용자 :**
링크 내 OTF 파일 다운로드 - 서체관리자App을 통해 서체 전체 설치

노루 창립 80주년
SINCE 1945

2. 심벌 재정립

재정립된 NOROO 심벌은 기존 형태를 개선하고 세부 디테일을 통해 입체감을 한층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형태로 개발해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 실사형 심벌



| 에칭형(디테일) 심벌



| 에칭형(심플) 심벌



3. 노루페인트 공통 용기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강화를 위해 노루페인트의 공통 용기 패키지 디자인도 새롭게 개발됐다. 유성, 수성, 공업, 락카, 신나 등 5종의 공통 용기 패키지에는 신규 개발된 NOROO 심벌과 함께, 미래로 뻗어 나아가는 의미를 담은 진취적 이미지의 그래픽으로 가치를 더했다. 용도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품 특성에 따라 컬러를 차별화해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NOROO
노루페인트
NOROO
노루페인트
Bright Color, Smart World
NOROO
노루페인트



더 큰 꿈과 새로운 도전으로 ‘백년기업’의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1945년 11월, 전쟁의 잿더미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서울 회현동에는 잉크를 개발하는 작은 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날 NOROO가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이후 80년 동안 NOROO는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거듭하며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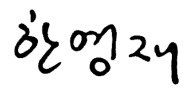
NOROO는 한 방울의 페인트에 기술과 신뢰,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담았습니다. 산업화의 격랑 속에서 품질로 신뢰를 쌓고, 도료를 넘어 컬러와 디자인의 가치를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혁신으로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나의 조국을 위하여’라는 NOROO 창업정신은 그 긴 여정 동안 깊이 뿌리내려 왔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다음 100년의 약속을 더욱 단단하게 다져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NOROO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부지런히 준비해 왔습니다. 농생명사업의 진출은 그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졌으며, 첨단 바이오 소재로 ‘나의 조국을 위하여’라는 창업정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류 모두를 위한 길’을 고민해 왔습니다. 기술 혁신과 ESG 경영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NOROO의 ‘지속가능한 미래소재기업’의 철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80년의 세월 동안 NOROO를 지탱해온 것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의 땀과 열정으로 기술과 품질을 키워온 임직원, 상생의 길을 더불어 걸어온 고객과 협력사, 그리고 변함없는 신뢰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지난 80년의 여정이 더욱 빛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우리가 걸어온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기에 더욱 가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NOROO는 색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기업, 사람과 환경과 함께 성장하는 영속기업이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8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더 큰 꿈과 새로운 도전으로 ‘백년기업’의 길을 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2월
노루홀딩스 회장



Chairman of the NOROO

한영재 회장이 말하는 NOROO의 미래



2025년은 NOROO가 창립 8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입니다. NOROO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셨을 때 어떤 감회를 느끼셨는지, 또 오늘의 NOROO를 있게 한 가장 본질적인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에게 80살은 많은 나이지만 기업의 80년은 '청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0년은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앞으로 5년, 또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온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NOROO의 80년을 '80'이라는 숫자에만 국한할 순 없습니다. NOROO는 해방과 함께 태동한 '해방둥이 기업'으로서 당시 꼭 필요했던 잉크와 도료 사업을 전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선도하며 국가 재건과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나의 조국을 위하여'라는 창업정신 아래 아무것도 없던 황무지 위에 산업화의 씨앗을 틔우고 꽃을 피워온 80년인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여정을 가능케 한 가장 본질적인 힘이 NOROO의 기업문화 속에 내재된 '약속을 지키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NOROO는 지난 80년간 고객과의 약속, 사회와의 약속, 그리고 우리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을 갈고닦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6·25전쟁과 IMF 외환위기 등 숱한 위기와 산업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지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런 NOROO만의 방식과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언제든 따라잡을 수 있고, 자본에는 흥망성쇠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미래사업의 기반은 점차 석유화학에서 바이오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NOROO가 지난 80년간 사업을 해온 이유, 세상에 꼭 필요한 기업으로 남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NOROO는 '정직한 기술, 사람을 위한 디자인, 미래를 위한 책임'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중심에 두고, 다음 100년의 여정을 준비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서 있습니다. 지나온 80년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세상과의 약속을 지켜가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80년간 NOROO는 수많은 도전과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회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중 가장 의미 있는 NOROO의 성과, 혹은 전환점은 무엇인지, 또 그것이 NOROO에 남긴 가치와 메시지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NOROO가 걸어온 80년 여정에는 크고 작은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제품을 넘어 솔루션을 제안하는 회사'로, '정밀화학 기업을 넘어 삶의 가치를 다루는 기업'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장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술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의 삶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는가?'입니다. '정밀화학 기술'에 대한 집요한 축적, '고객 중심'의 유연한 대응,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온 '구조적 투자'는 단순히 성장을 위한 전략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후 위기, 자원 고갈, 산업구조의 전환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규모가 작아 자급자족이 어렵고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 관세정책과 같은 경제의 흐름은 기존 우리 경제구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과감한 도전을 감행하게 합니다. NOROO는 지난 10여 년간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군으로 옮겨가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 왔습니다. 첨단기술에 기반한 육종 연구로 지식 재산권을 강화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친환경 신소재 3HP를 상용화하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스텔스 도료를 국산화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NOROO의 여정은 단지 시장 맞춤형 전략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길, NOROO가 만드는 새로운 길'이란 경영철학의 실현이자, '한국 기술의 자존심'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더 큰 맥락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기업의 진짜 경쟁력은 외형이나 숫자가 아니라 '철학'에 있다는 것입니다. NOROO가 끝까지 지키고자 한 원칙,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온 수많은 도전과 선택, 결단이 오늘의 NOROO를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지난 80년간 숱한 위기와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NOROO의 핵심 경영철학은 무엇인지요. 또 회장님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과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업이 오랜 시간 생존하기 위해선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영'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우리에게도 혹독한 시험대였습니다.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경영이 안정되면 반드시 전원 재고용하겠다"라는 약속을 임직원들과 나누었고, 결국 그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고, 공동체 전체가 아픔을 나누며 회사의 위기를 이겨낸 것입니다. 이후 NOROO는 모든 의사결정에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기준을 남겼습니다. 기업은 단지 수익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구성원과 사회 전체를 위한 신뢰의 집합'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같은 철학은 오늘날 NOROO가 석유 기반에서 바이오 기반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커다란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산업구조 면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고, 딥테크산업 못지않게 바이오산업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입니다. 옥수수·사탕수수 등 재생 가능한 식물자원과 미생물·효소 등의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 화이트 바이오산업은 기존 석유화학산업을 대체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기후 위기, 자원 고갈,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NOROO는 기존의 경험과 관행, 사고방식을 고수하기보다 새로운 관점과 NOROO Way에 근거한 고유한 경영철학을 토대로 '어떤 방향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인가'를 깊이 고민해 왔습니다. 바이오 기반 미래소재기업으로의 전환은 그 고민의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NOROO는 정밀화학 기반의 첨단소재기업으로서 현재의 위상을 유지하는 동시에, 바이오 기반 신소재 개발을 통해 인류와 환경에 도움이 되는 기술, 사람에게 이로운 기술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는 지난 80년간 우리가 지켜온 철학을 다음 세대로 잇는,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NOROO는 1960년대 업계 최초로 해외 수출을 시작했고, 198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회장님께서 경험하신 NOROO의 글로벌 시장 진출 내용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전환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글로벌 진출은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기술과 신뢰로 문화를 잇는 일입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인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자금성 복원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당시만 해도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강하게 펼치던 시기라, 외산 브랜드에 대한 경계심과 장벽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NOROO는 혹한과 혹서가 반복되는 북방 기후에 걸맞은 최적의 제품을 제시했고, 결국 우수한 제품력으로 자금성 외곽 복원 작업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기술이 동아시아 최대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는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이 곧 신뢰이고, 신뢰는 결국 문화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 절감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이후 NOROO가 글로벌 시장을 대하는 자세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각 나라의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기술 기업으로서 NOROO는 현지와의 '진심 어린 동행'을 목표로 삼아 왔습니다.

현재 NOROO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석유라는 기초 물질에서 석유화학산업이 파생되었듯, NOROO가 세계 최초로 7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해 생산 중인 3HP라는 바이오 기초 물질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NOROO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순 없습니다. 다양한 국가,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그동안 늘 선진국의 뒤를 쫓는 후발주자였던 대한민국이 3HP 생태계에선 미국·일본·독일 등의 기술 선진국과 같은 출발선 상에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기술 도입국, 지식 수입국이었던 대한민국이 3HP 원천기술을 확보한 지식 수출국으로 포지션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 기반을 NOROO가 구축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NOROO는 기술혁신과 품질 향상,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장기적 투자를 지속해 왔습니다. 수익이 단기간에 보장되지 않는 분야에 어떻게 확신을 갖고 과감히 투자하실 수 있었는지 그 배경과 철학이 궁금합니다.

수익이 불확실한 영역에 투자하는 것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특히 기업이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고민한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는 단기 수익률이 아닌 지속가능성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NOROO가 농생명과 바이오 분야에 진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기존 사업의 확장이라기보다, 기후 위기·식량안보·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정밀화학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재정의하는 선택이자, 석유 기반 사업에서 바이오 기반 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식물종자 개발과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재배 효율을 높이는 것은, 결국 바이오매스(식물 원료)에 기반한 화이트 바이오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NOROO의 농생명사업과 바이오사업이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며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화학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듀폰, 바이엘, 바스프 등이 바이오와 생명과학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도 같은 흐름의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NOROO는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정밀화학 기술과 컬러 솔루션 역량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개발, 친환경 원료 기반 제품 전환, 기술 기반의 지식 재산권 강화, 자연과 공존하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단기적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떤 산업구조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성찰의 결과입니다. 기술의 방향을 사람과 자연을 향해 돌리는 일이야말로 기업이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공공성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NOROO는 앞으로도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가치를 위한 투자'를 통해 영속기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창립 80주년을 넘어 진정한 '100년 기업',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이 순간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진정한 100년 기업은 단순히 오래 살아남은 기업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과 '바꿔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낼 줄 아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산업의 패러다임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NOROO가 앞으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의 삶에 실질적 가치를 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에 실질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기업의 본질적 사명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석유 기반 경제에서 바이오 기반 생태계로 이동하는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산업 전반의 철학과 방향을 바꾸는 일이며, NOROO는 이러한 변화에 앞장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조국을 위하여'라는 창업정신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중요한 기준이자 나침반입니다. 그 정신을 지켜내는 동시에 기술과 감성, 산업과 자연, 이익과 책임의 조화를 이뤄내는 기업, 그것이 바로 NOROO가 꿈꾸는 진짜 위대한 기업의 모습입니다. 위기일수록 더 강건해지는 NOROO의 사풍이 이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의 조건은 거창한 비전보다 사람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치열한 경쟁이나 수익 중심의 대차대조표에 의존하기보다 회사와 구성원, 동종 업계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상생의 미학을 발휘할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고객, 구성원, 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온 지난 80년처럼 NOROO는 앞으로의 100년도 같은 마음을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지만 사람에 대한 약속은 절대 퇴색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위한 색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며, 사람 곁에 오래 머무는 꼭 필요한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그것이 NOROO가 말하는 '위대한 기업'의 방식이며, NOROO가 할 수 있는 '다음을 위한 약속'입니다.

세계 일류기업을 향한 80년의 여정

1945년 탄생한 NOROO는 노루페인트를 중심으로 견고한 도료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오늘날에는 단순한 페인트 회사를 넘어 농생명, 바이오, 디자인, IT 등 다채로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 일류기업을 향한 NOROO는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이다.

노루 80주년
온라인 역사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NOROO의 80년 역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940~1950년대

해방과 함께 탄생한 민족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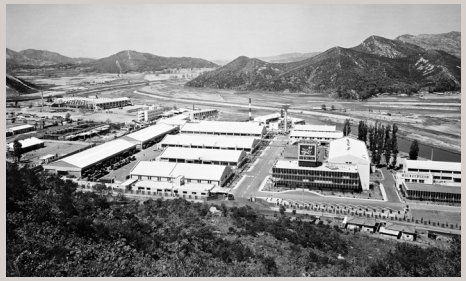
1945년 해방 직후, 창업주 한정대 회장은 '대한오브세트잉크'라는 이름으로 NOROO의 시작을 알렸다. 국내 최초로 국산 흑색 잉크를 개발해 교과서와 지폐 제작에 공급하며 '사업보국'이라는 창업 이념을 실천했고, 창업 초기 '노루표' 상표를 등록했다.



1960년대

생산체제 현대화와 품질 제일주의 실현

1955년 문래동 공장 준공 이후 NOROO는 기술연구소와 현대적인 생산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도료 생산에 착수했다. 미연방 규격 도료 생산과 동남아 시장으로의 인쇄잉크 수출을 전개하며 국내 도료·잉크 산업 발전을 선도했고, 도료업계 최초로 KS 표시허가를 획득하며 '품질 제일주의'의 기반을 확립했다.



1970년대

사업다각화와 안양공장 준공

1970년대 NOROO는 플라스틱 사업과 인형·완구 업체 '대협' 설립 등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자동차·선박·가전 등 공업용 도료 생산을 확대하며 도료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고, 안양공장 준공과 기업연구소 신설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1980년대

첨단 도료 생산과 품질 경쟁력 강화

1980년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첨단 도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NOROO는 분체도료·자동차 보수용 도료·악기용 도료·PCM 도료 등 유럽 및 미주 지역의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기술력을 고도화했다. 1985년 안양공장 2단지에 분체도료 전문공장을 준공하고, 선박·자동차용·컬러강판 도료를 생산하며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추었다.



1990년대

경영체제 정비와 업종별 전문화

1988년 한영재 사자의 부임 이후 NOROO는 경영체제 정비와 전문화를 추진했다. 도료 품목별로 전문 계열사를 분사하는 전략을 실행하며 고객 중심·품질 중심의 경영 체질로 전환했고, '기업문화상' 제정을 통해 전 구성원이 공유할 경영철학과 방향성을 명확히 정립했다.



2000년대

경영혁신을 통한 초일류 기업 지향

2000년대 NOROO는 글로벌 메이저 도료업체들과의 합작 및 관계사 간 역할 분담을 통해 해외 생산 기반을 확대했다. 6시그마 경영기법과 BSC(균형성과지표) 등 선진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며 세계 초일류 기업을 향한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2010년대

그룹 정체성 확립과 신사업 전개

NOROO는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전진을 이어갔다. 이 시기 CI 통합과 'NOROO Way' 제정을 통해 그룹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열사 간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융합의 시너지를 창출해 고객 만족을 극대화했다. 또한 기존 도료사업을 기반으로 더기반을 설립해 첨단 농생명 분야에 진출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2020년대

바이오 기반 화학사업으로의 전환

NOROO는 지난 80년간 축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신성장동력인 농생명 분야 투자와 친환경 바이오 소재인 '3HP' 상용화를 추진하며 석유 기반의 정밀화학 사업에서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변화는 창업이념 '나의 조국을 위하여'를 넘어,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인류에 기여하는 기업으로의 도약을 상징한다.

1945—1966 창업과 성장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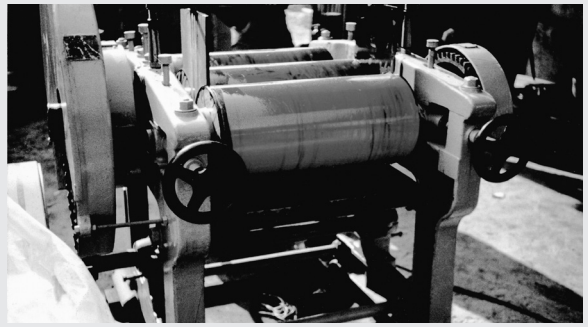
8·15 해방과 함께 시작된 NOROO의 역사는 한정대 선대회장의 '나의 조국을 위하여'라는 창업정신에 기반한 것이다. 1945년 11월, 선대회장은 '대한오브세트잉크'를 설립하며 인쇄잉크 제조사업에 뛰어들었고, 국내 최초로 흑색 잉크를 개발해 교과서와 지폐 인쇄에 공급함으로써 국가 재건과 교육 문화의 부흥에 기여했다. 6·25 전쟁 중에도 지폐용 잉크를 공급하며 경제 안정을 뒷받침했고, 종전 후에는 도료사업에 진출해 국가 기간산업 육성에 힘을 보태며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철학을 실천했다. NOROO의 뿌리는 단순한 기업의 탄생이 아니라, 산업을 통해 나라에 기여하겠다는 명확한 사명감에서 출발한 민족기업의 시작이었다.



1945. 대한오브세트잉크 정문(재현)



1950. 회현동 공장의 바니시 솥(재현)



1945. 안료를 분산하는 롤링밀



1956. 완공된 문래동 공장에서 전직원 기념촬영



독일 만(MAN)사를 방문한 한정대 선대회장



1963. 을지로 사옥 신축



대한잉크로 찍은 조선은행권(십원)



특약점 전경



1962.11. 17주년 창립기념식



사업 초창기 노루의 매장



1966.11. 일본 니폰페인트와 기술 및 업무제휴



노루표페인트로 도장하는 미군부대 내 주택



1965.08. 창립 20주년 기념 전시회(좌측 한정대 선대회장)

1967—1988 경쟁력 강화와 고도성장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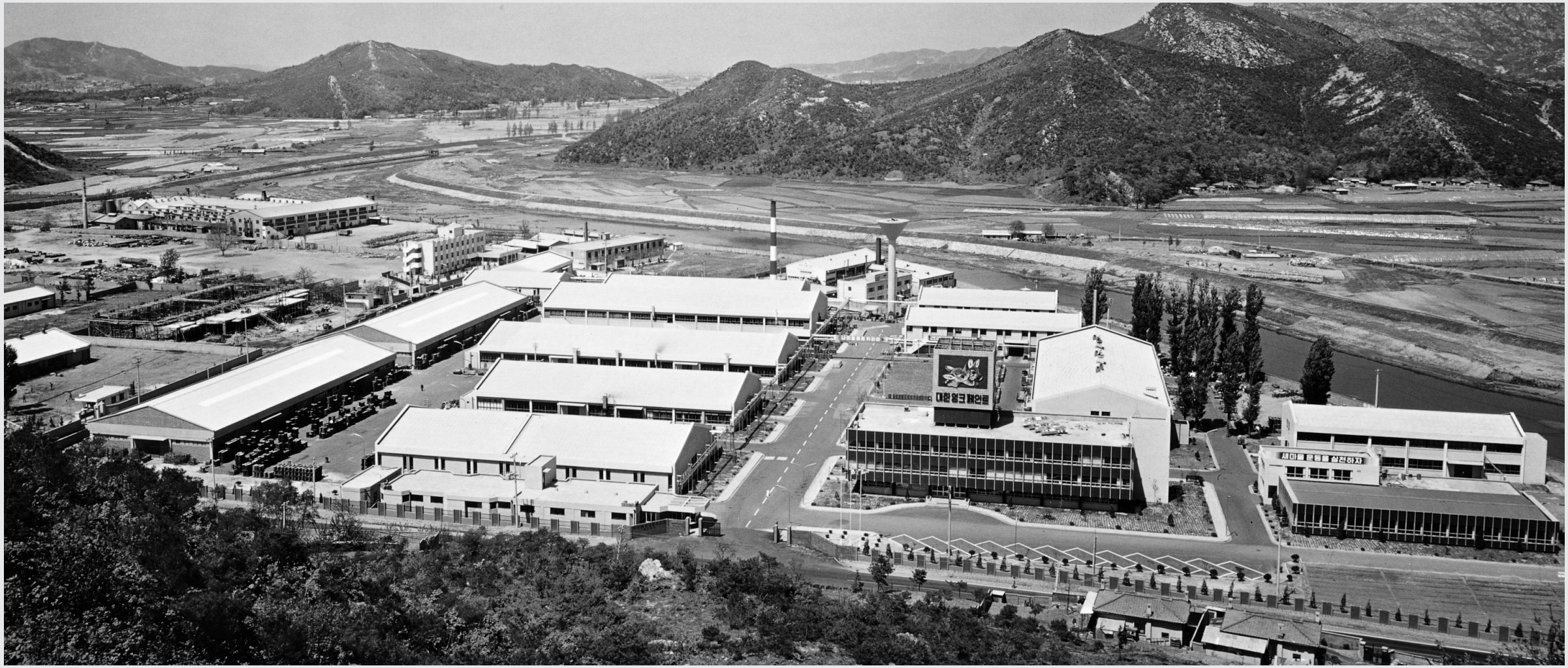
창업 이후 NOROO는 앞선 혜안과 과감한 결단, 그리고 '품질 제일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이어갔다. 이 시기에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은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됐다. 1970년대 중반 안양공장 준공으로 대량생산체제를 확립한 NOROO는 니폰페인트, 셔윈 윌리암스, 인터내셔널페인트 등 세계 유수 도료업체와의 합작을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키워 나갔다. 이와 동시에 회장제 신설과 기획조직의 확대를 통한 경영체제 혁신과 세대교체가 이뤄졌으며, 이는 NOROO의 글로벌 전환 속도를 크게 높이는 기폭제가 됐다. 이 시기 NOROO의 고도성장은 한국 도료산업 전체의 수준을 세계적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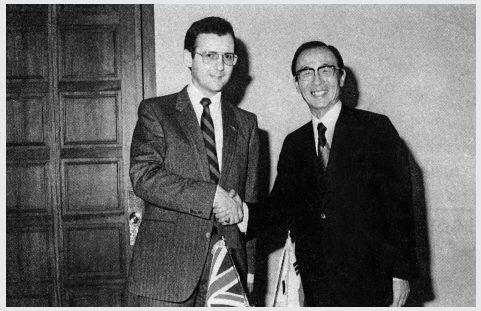
1968. 대한조화공업 조립라인



1974.11.30. 한정대 선대회장 동탑산업훈장 수훈



1976.04.01. 안양공장 준공



1979.08. 영국 인터내셔널페인트와 합작 조인식



1980.03.31. 부산사옥 준공



1985.05.09. 분체도료공장 준공



1986.07.11. 한일은행 41년 신용거래 감사패 수상



1987.11.25. 사풍일신 추진대회



업계 최초 무인 자동화 창고



1987.02.18. 컬러 프레젠테이션(Color Presentation) 개최



1988.12.01. 기술연구소 독립

1989—1999 전문화·세계화를 통한 도약

1980년대 후반 NOROO는 단순한 '도료 제조기업'을 넘어 컬러와 문화의 가치를 다루는 기업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1987년 업계 최초로 '색채연구실'을 개설하며 자동차·가전·건축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친 색채 연구를 본격화했고, 색채 전문지 발간, 컬러 발표회 등 컬러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영향력 확장에 나섰다. 이 시기 NOROO는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조직 전문화에 기반해 분사 전략을 단행, 업종별 전문 계열사 체계를 갖추며 글로벌 시장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기능 중심의 '도료 회사'를 넘어, 감성과 트렌드를 제안하는 컬러 솔루션 기업으로 정체성을 확장한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1990.11.01. 창업 45주년 기념식



1990.11.09. 안양공장 사료전시실 개관



1991.09.02. 자동차 보수용 도료공장 준공



1991.11. 한국표준색표집 발간



1993. 종합생산성대상 대통령상 수상



1995. 창립 50주년 기념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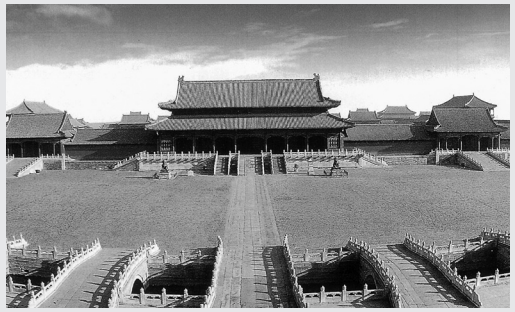
1993.07.01. 종합생산성대상 대통령상 수상



1994.04.01. 수성 자동 포장 라인 가동식



1994.04.01. 흑색 잉크공장 준공식



1995.07.12. 중국 자금성 보수용 도료 수출 계약



1995.11.29. 니폰페인트와 자동차용 도료 공장 합작투자계약 체결



1995.11. 창립 50주년 기념식



1996.11.19. 부산공장 준공



대한페인트·잉크주식회사의 제품들



1998.11.24. 한정대 선대회장 영결식

2000—2013 새로운 도전과 혁신

NOROO는 한영재 회장의 취임과 함께 새천년을 맞이했다. 2000년 11월, 회사는 '대한페인트·잉크(주)'라는 이름에서 '(주)디피아이'로 사명을 변경했다. 그룹 내 지주회사체제 출범으로 경영혁신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회사 분사 정책으로 경영 효율성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 사업구조를 개편했으며, 품질·안전·환경경영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 나눔과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실현했다. 또한 활발한 해외 진출, 친환경·프리미엄 도료 중심의 기술혁신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구축했다.



2005.06.29. 포승공장 신축공사 착공식



2006.07.03. (주)노루페인트 상장



2008.04.15. 포승공장 준공



2008.10.16 노루오토코팅 공장 준공



2008. 포승공장에 설치된 자동화 시설



2008.04.15. 포승공장 준공에 따른 기념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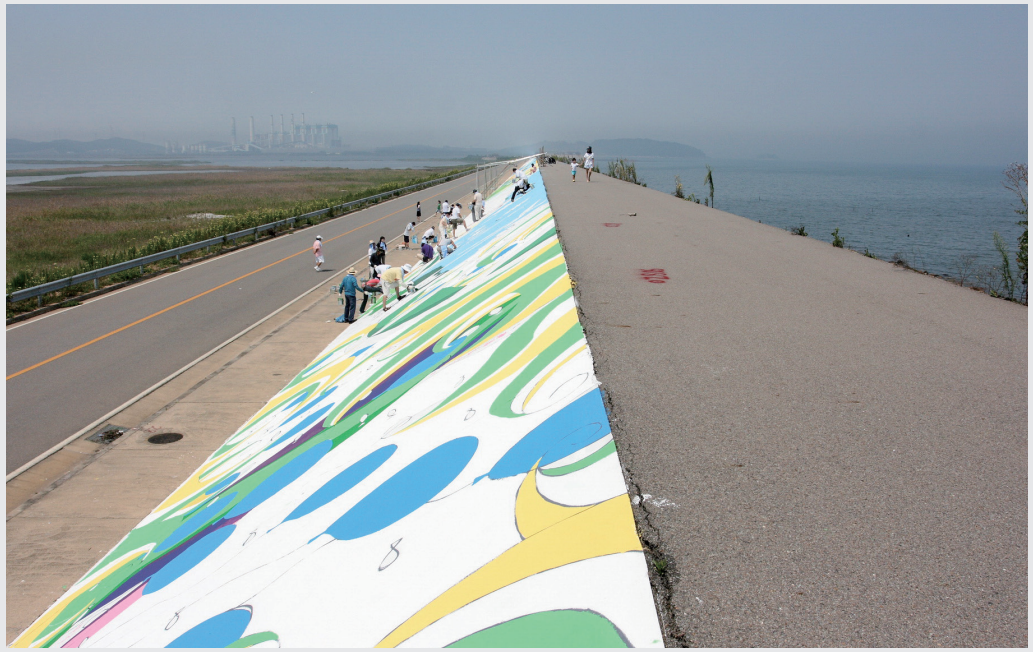
2008.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현장 봉사활동



2008. 노루페인트 현대화 매장 첫 오픈



노루페인트 제품들



2010. 충남 태안군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2011. 프리미엄 도료 '팬톤페인트' 출시



2013.03. 노루 페인트 & 코팅쇼 오픈식



2013.08. 을지로 사옥 리뉴얼 오픈

2014—2025 신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백년기업으로

최근 10년간 NOROO는 다음 100년을 위한 대전환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 농생명·바이오 분야로의 진출을 통해 식량안보·종자주권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섬유·건자재를 넘어 농업·에너지·방산·배터리 소재로까지 기술 확장에 나섰다. 2014년 노루기반 설립을 시작으로 스마트팜, 정밀 농업, 종자 육종 및 생명공학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했으며, 3HP 기반의 바이오 소재 상용화와 스텔스 도료 개발로 화이트 바이오·방위산업·친환경 고기능소재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NOROO는 잉크와 도료로 시작해 Bio·Color·ESG·Cultural Innovation으로 확장하며 이제 “지속가능한 미래소재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14.03.03. 노루기반-흙살림 합작회사 조인식



2014.08.12. 악조노벨과 전략적 파트너십 조인식



더기반 안성연구단지 개발 품종 테스트 현장



2015.05.07. 노루기반 차광도포제 이용 기술 평가 현장



2015.11.18. 노루 70주년 기념 인사동 사진전 개최



2016.12.09. 2017 노루컬러트렌드쇼에서 컬러 & 디자인 트렌드북 <COVER ALL> 론칭



2017.10.25. 더기반 안성연구단지 준공식



2018.02. 2018 노루 VIP특약점 초청 세미나 개최



2018.11.29. 컬러 & 디자인 트렌드북 <COVER ALL> 일본 론칭



2019.04.25. 해피인사이드 전시 참여



2020.08.20.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참여



2020.12.01. 한영재 회장, 한국 메세나인상 수상



2021.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BOF) 벽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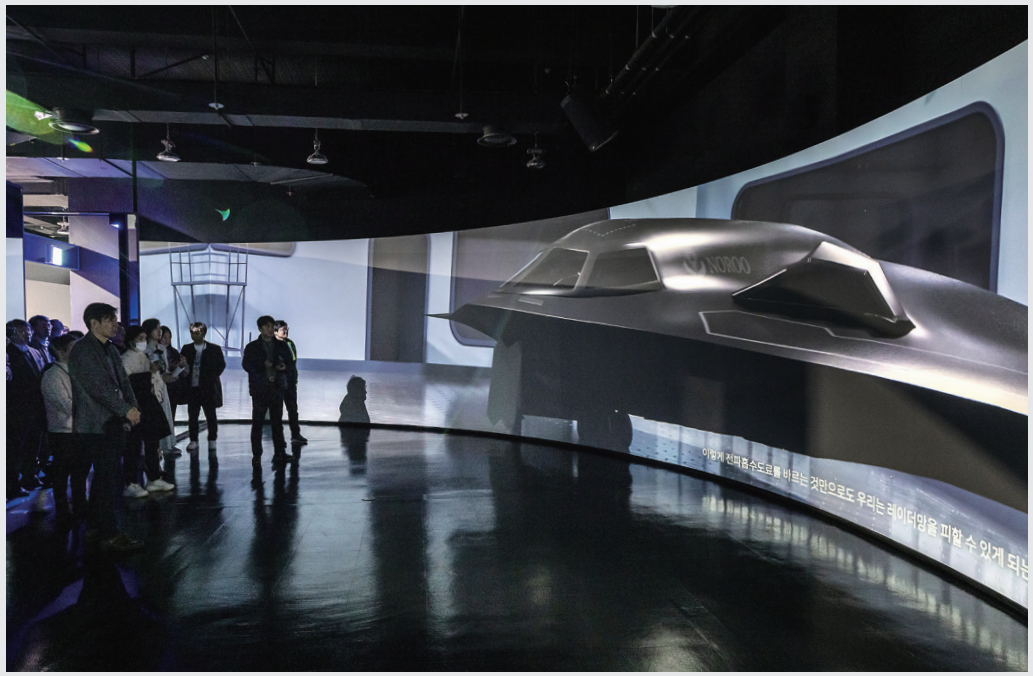
2022.11.23. 한영재 회장 금탑산업훈장 수훈(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2023.10.06. 노루컬러센터 신축공사 기공식



2023.09.06. 프리즈 서울 2023 공식 파트너사(社) 참가



2024. 대전국립중앙과학관 스텔스 도료 소개 영상 전시



2024.03.06.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 'Inter Battery 2024' 참가

NOROO, The New Chapter

지속가능한 미래소재기업으로 나아가다

2014 - 2025

The Next Horizon - 10 Years of Innovation

지난 80년 동안 NOROO는 잉크와 도료를 넘어 컬러와 기술, 그리고 신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성장과 변화를 함께해 왔다. 그러나 NOROO의 여정은 단지 '생산'의 역사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영역을 가장 먼저 읽고 선제적으로 응답해온 기업의 진화사(進化史)였다.

오늘 NOROO가 맞이한 새로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성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깊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NOROO는 석유화학 중심의 정밀화학기업에서 바이오 기반 미래소재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단순한 신사업 확장이 아닌, 창업정신 '나의 조국을 위하여'에서 출발한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철학을 인류 전체로 확장하는 도전이다.

농생명 분야에서의 식량안보 기여, 스마트팜과 정밀농업을 통한 글로벌 농업혁신, 바이오 플랫폼 케미컬 '3HP' 상용화를 통한 화이트 바이오 생태계 구축, 그리고 국내 최초 스텔스 도료 개발을 비롯한 국가 전략산업 수준의 기술 자립 실현까지 NOROO는 이제 도료를 넘어 '사람과 환경,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술 기업'으로 그 정체성을 재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NOROO가 맞이한 단순한 '다음 단계'가 아니라, '기업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한 확고한 대답이자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100년의 선언이다.

1. 농생명 분야 신사업에 매진하다

• NOROO의 농생명 BG 통합 브랜드 '기반'

'기반'이라는 이름은 미래형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개선된 농업환경 구축을 위한 NOROO그룹의 농생명 BG 통합 브랜드이다. 농생명산업을 위한 기술 개발을 비롯해 생명공학 및 농생명 연구협력, 글로벌 채널 구축 등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가치 증대를 지향하는 토대가 되겠다는 NOROO의 의지를 담았다.

NOROO의 신성장동력, 농생명 분야로 진출

NOROO가 지속가능한 백년기업으로 향하는 길은 농생명사업 진출에서 시작됐다. 특히 2014년은 그 분기점이 된 해였다. 그간 숱한 신규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석유화학 기반의 인쇄잉크·도료·코팅제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NOROO는 처음으로 기존 화학 분야와 겹치지 않는 신사업에 도전했다.

NOROO는 2014년 2월 25일 '노루기반'•을 설립하면서 농생명 분야에 첫 발을 내디뎠다. NOROO가 농생명 분야와 인연을 맺게 된 데에는 2005년 노루페인트가 개발한 '농업용 차광제'가 가교 역할을 했다. 이후 차광제뿐 아니라 하우스 프레임 방청 및 병충해 방지용 코팅제 등의 개발을 추진하면서 농생명 분야의 잠재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미래 식량문제는 노지 재배와 온실 재배로 귀결될 것으로 예측한 한영재 회장의 판단도 신사업의 방향을 농생명 분야로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2011년 4월 출범한 신사업팀은 이 같은 방향성 아래 농생명 분야의 사업성과 시장 잠재력을 타진해 나갔다. 당시 NOROO가 벤치마킹했던 모델은 바로 세계적 명성의 글로벌 종합화학기업 듀폰(Dupont)이었다. NOROO는 1802년 창립한 듀폰이 200년 넘게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을 '끊임없는 변화 추구'라고 여겼다.

아울러 글로벌 종합화학기업에서 농생명기업으로 변신 중인 듀폰의 도전정신에 주목했다. 더욱이 2010년대 이후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기후 위기와 식량안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도 농생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반드시 필요했다. NOROO의 창업정신도 이를 뒷받침했다. 한정대 선대회장의 '나의 조국을 위하여'•, 즉 '사업보국' 정신과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NOROO의 농생명 분야 진출은 일맥상통했다.

이후 NOROO는 미래 신성장동력을 농생명 분야에서 찾겠다는 생각으로 사업 아이템을 모색해 나갔다. 초반에는 시설원예와 온실 등에 초점을 맞추고 시설 재배를 통한 작물 재배, 대량생산을 위한 재배방식의 혁신을 살펴보았고, 점차 농가 생산성 향상의 근본인 종자사업으로 관심의 폭을 넓혀 나갔다. 특히 종자사업은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종자주권과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업이니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했다. 신사업팀은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농자재 유통사업, 종자사업, 농생명과 연관된 바이오 및 관련 R&D 등을 신사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농작물 생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농민·기업과 함께 상생하며 발전하는 '고부가가치 하이 밸류 모델'을 지향하겠다는 의지에서였다. 노루홀딩스의 자회사로 출발한 '노루기반'과 '더기반'은 그렇게 탄생했다.

노루기반과 더기반의 지속적 사업 확장

노루기반 출범 직후인 2014년 5월 30일 노루홀딩스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업무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의 주요 내용은 시설원예 광이용 기술협력 개발, 농업 ICT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교환, 전문





위. 2016.06.03. 더기반 안성 R&D단지 신축공사 기공식
아래. 2025.05.20. 더기반 안성 R&D단지 전경

가 학술 교류와 공동 세미나 개최, 연구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등으로, 시설원예 발전 및 기술 보급에 관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했다.

NOROO는 이후에도 꾸준히 농생명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2015년 2월에는 작물 관리와 생육 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시설농업사업의 보급을 위해 시설농업 종합 솔루션 기업인 '기반엔지니어링'을 설립했고, 2015년 3월에는 공간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 ICT 기업인 '노루지에스소프트'를 노루기반이 인수하며 첨단 농업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어 2015년 7월 23일에는 NOROO의 미래 먹거리 핵심인 종자사업을 담당할 '더기반'을 설립하고,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종자주권 수호를 위한 본격적인 여정에 돌입했다. 더기반의 설립을 기점으로 NOROO의 농생명사업은 시설농업·스마트팜 중심의 노루기반과 종자 육종 개발·생산 중심의 더기반이라는 투 트랙 구조로 정립됐다. 노루기반과 더기반은 사업 초반부터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NOROO의 농생명사업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 출발점은 2015년 12월, 노루기반이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기반아그로'를 통해 카자흐스탄 국립 농업대학교와 체결한 시설원예사업 협약이었다. 이후 노루기반은 중국 베이징·톈진에 이어 미국 하와이에도 스마트팜 제조 법인을 설립하며 해외 진출을 더욱 가속화했다. 2017년 4월에는 스마트팜 자동화 설비인 제어기·감지기 등을 공급하는 '노루크로비스'를 흡수합병하며 성장세를 강화했고, 2019년 4월 15일에는 사명을 '노루기반'에서 '(주)기반테크'로 변경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더기반 역시 우수하고 건강한 종자를 개발·보급함으로써 농생명 생태계의 뿌리를 다지는 종자사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설립 직후인 2015년 10월 경기도 안성에 R&D 부지를 조성했고, 2016년 6월에는 약 5만 2,500평 규모의 안성 R&D단지를 착공했다. 이어 2017년 3월 육종연구소와 생명공학센터를, 같은 해 10월 종자가공센터를 준공하며 육종·품질·연구 인프라를 모두 갖춘 원스톱 종자 개발 기지를 완성했다.

더기반은 이 기간 국내외 영업 기반을 동시에 구축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을 준비했다. 국책사업인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 연구 과제에 참여했고, 농업회사 법인으로의 전환도 마쳤다. 안성 R&D단지를 기반으로 종자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를 완비한 것이다.

해외 시장 공략도 빠르게 전개됐다. 2017년 10월 첫 해외 수출 성과를

노루기반에서 (주)기반테크에 이르기까지

- 2014.01. (주)노루기반 설립
- 2015.02. 기반엔지니어링 설립
- 2015.03. 노루지에스소프트, 노루기반 인수
- 2017.04. 노루크로비스, 흡수합병
- 2019.04. 노루기반에서 (주)기반테크로 사명 변경

거둔 데 이어, 2018년 2월 28일 태국 치앙마이에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약 2만 평 규모의 현지 R&D단지를 준공했다. 더기반 태국법인(Thailand Chiangmai R&D Complex)은 현재 안성 R&D단지와 연계해 다양한 기후와 환경에서 안정적 재배 가능한 고품질 종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 더기반의 안성 R&D단지

2015년 설립된 더기반의 안성 R&D단지는 5만 2,500평 규모의 대지에서 토마토, 고추, 양배추, 참외, 멜론, 오이, 양파, 수박, 배추, 무 등을 다양한 작품의 육종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로 육종기간의 단축 및 내병계 품종 육성을 진행해 고품질의 안전한 종자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후 2018년에는 태국 현지에 R&D단지를 설립하고 약 2만 평 규모의 대지에서 열대, 아열대, 온대 지방에 이르는 다양한 작물을 시험 재배하며,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NOROO는 R&D 역량을 활발하게 펼치며 해외시장에 특화된 종자를 직접 개발하고 유통·판매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화 구조를 갖췄다.

더기반,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 연구·개발로 경쟁력 강화

NOROO는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미래가치 제고를 목표로 농생명사업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했다.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은 사업 진출 약 5~6년이 지난 시점부터였다. 2019년 5월 16일, 더기반이 개발한 참외 품종이 '2019 성주 생명문화축제 & 성주참외페스티벌'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어 2020년 5월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Inclusive Business Solution) 협력 기업으로 선정돼 라오스 생산 기반 구축 및 기술보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기반은 이후 5년간 KOICA와 IBS사업을 수행하면서 2021년 5월 라오스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전략적 생산기지를 구축했다. 고품질 채소 종자의 효율적인 생산·공급체계를 마련하며 해외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동시에 현지 맞춤형 육묘 및 재배기술 전수와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통해 라오스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했다. 이 사례는 KOICA의 대표적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로 평가받으며 NOROO의 글로벌 농생명사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더기반의 글로벌 시장 확대 노력은 이후 더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23년 12월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는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며 수출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2025년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는 기술력, 수출 실적, 해외 시장 개척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더기반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기술 잠재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쾌거였다.

더기반은 앞으로도 중앙아시아, 중동,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을 중심으로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채소 종자 보급을 확대하고, 글로벌 바이어와의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수출 지역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종자의 글로



2019.07. 더기반 태국법인



2024.05.27. 라오스 채종기지 전경

벌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더기반 생명공학센터에서는 새로운 품종 개발과 시험재배 기간 단축을 위한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신품종을 개발하려면 오랜 시험 재배가 필요하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1회 재배만 가능하므로, 표준적인 개발 기간만 10년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러나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면 품종 육성 기간을 5년 이하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며, 더 많은 종자를 수확해 우수 품종을 정밀 선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양체 연구'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소요되던 결과물을 1~2년 안에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품종 개발의 혁신적 속도 향상이 가능하다.

더 많은 수확량, 강화된 내병성, 빠른 수확, 재배 편의성 등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차세대 품종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도 더기반 육종 연구의 핵심 목표이다. 현재 더기반은 중국·인도·우즈베키스탄·파키스탄·미국·멕시코·이집트 등 다양한 국가에 오이, 할라피뇨 고추, 토마토 등 현지 맞춤형 채소 종자를 수출하며 한국 농생명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2020.09. 더기반 생명공학센터 연구개발

TIP STORY.

더기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책임질 R&D의 방향과 현황은?



2025년 현재, 더기반의 R&D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심축을 토대로 움직이고 있다.

첫째, 생산성이다. 재배자 중심의 관점으로 수량성과 내병성을 개선해 재배비용을 절감하고 외부환경 적응이 수월한 종자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체선발, 도입 육종, 분리 육종기술을 적용 중이다.

둘째, 품질성이다. 마찬가지로 재배자를 중심에 두고 생산성 및 내병성을 개선해 맛·형태 등의 품질을 높여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인공교배, 잡종강세이용, 계통집단선발, 여교배, 돌연변이 등이 꼽힌다.

셋째, 안전성이다. 소비자를 고려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게 목표다. 조직배양, 세포융합, 순환선발, 약배양, 마커 선발 등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넷째, 맞춤성이다. 재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재배 안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능성 성분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형질전환, 유전체정보이용,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더기반의 이 같은 R&D 방향은 육종기술의 패러다임 전환과 맥락을 같이한다. 기후 변화와 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품종 개발이 대세를 이룸에 따라, 육종기술 역시 분자육종에서 디지털 육종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이에 더기반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목표 형질 맞춤형 초정밀 육종과 세대 단축 등 품종 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 내재해성·고기능성·맞춤형 신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기존 육종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의 수요에 맞춘 신품종 종자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반테크, 꾸준한 사업 확대로 농생명 분야 선도

기반테크 역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접목해 극심한 기후 변화에도 안정적인 재배 환경을 유지하고,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팜 사업을 중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기반테크가 농협 스마트팜 플랜트사업 1호 모델로 설계·시공한 경북 영천 온실은 스마트팜의 생산성 향상을 실질적 수치로 입증했다. 스마트팜 도입 이후 1㎡당 농산물 생산량은 27.9%

증가했고, 고용 노동비는 16%, 병충해 발생률은 무려 53.5% 감소했다. 농산물 품질 개선 효과 또한 명확하게 나타났다. 기반테크 스마트팜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장 진단부터 컨설팅, 설계도면 제작, 공사,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발주처에 최적의 온실 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 사례로는 기존 방식 대비 폐기물이 적고, 폐수를 살균해 재활용하는 충북 음성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온실이 있다. 이는 전력뿐 아니라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활용 모델로도 주목받았다. 또한 기반테크는 보급형 스마트팜부터 대규모 온실 안정화 프로젝트까지, 빅데이터·IoT 플랫폼과 연계한 스마트팜 설계·구축 사업을 확대하며 NOROO의 정밀화학



위. 2022.01.04. 기반테크에서 설치한 스마트팜. 농작물 재배 환경에 맞춰 최적의 온실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아래. NOROO의 컬러 코팅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육성 종자들

DNA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농생명 솔루션 기업으로 그 입지를 더욱 굳히고 있다.

온실차광제가 외부 코팅을 통해 온실 내부로 유입되는 열선 투과를 줄여 급격한 온도 상승과 습도 변화를 억제한다면, 축사차열제는 폭염으로부터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해 산란율과 착유량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비닐하우스 외부 필름에 직접 도포하는 방식으로 시공이 간편하며, 드론을 활용한 대면적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한 다양한 온실·축사 구조에 적용 가능하고 열 차단 효과가 탁월하며, 외국산 대비 도포 층이 얇아 고온기 작물 생장 속도와 품질 유지, 가축 성장 효율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상반기 일본 이노치오(INOCIO)사의 현지 필드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으며 수출 계약이 성사됐고, 이후 태국·호주·멕시코·네덜란드 등으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종자코팅제, 비료코팅제, 식물생장제(명인비료), 오가닉생장제 등 스마트 농자재 분야 역시 기반테크의 강세가 뚜렷하다. 특히 친환경 코팅 응용기술을 기반으로 한 표면처리 기술은 기반테크 농자재사업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로, 예컨대 종자코팅제의 경우 최근 강화되는 미세플라스틱 규제 대응을 고려해 환경친화형 소재로 설계됐으며, 기계 파종 효율성을 높이고 컬러 식별성을 강화한 기능성 코팅 기술로 높은 시장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외에도 비료 사용 효율을 증대시키는 비료 코팅제,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신선유지제 등의 신제품 연구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광학실험 장비, 바이오실험 장비 등 연구장비사업과 식품 및 소재 유통사업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기반테크는 글로벌 파트너와 다양한 제품에 대한 국내외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 수요 기반의 신규 아이템을 연구·개발해 국내 유통을 추진하고, 해외 거래선 확보 및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농생명 전문 상사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미래 비전인 'AGRI & BIO INDUSTRY CREATOR', 그리고 미션인 'Create NEW PARADIGM for Sustainable Environment'를 실현하기 위해 기반테크는 도전적인 기술 투자와 확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며 한 단계씩 전진하고 있다.

2. 지속가능한 성장을 구현하다

컬러 비즈니스와 아트 컬래버레이션의 강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NOROO는 컬러 비즈니스를 한층 강화해 '컬러 솔루션 전문기업'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했다. 2012년 처음 출범한 NCTS(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까지 8년간 매해 개최되며 아시아 최대 규모 컬러 & 디자인 행사로 자리매김했고, 'NOROO=컬러 전문 기업'이라는 인식을 대중에게 전달했다. 세계적 명성의 글로벌 아티스트와 디자이너가 한자리에 모여 컬러와 디자인 트렌드를 탐구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매해 문화·예술·디자인 전반에 관한 변화 이슈와 미래 예측을 통해 대중에게 영감을 주는 주제를 천명하며 창의적·전략적 인사이트를 제안하는 행사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4년 9월에는 미국 팬톤(PANTONE)사와 합작해 노루팬톤색채 연구소(NPCI, NOROO-PANTONE Color Institute)를 설립했다. NOROO는 색채 경쟁력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건축·자동차·가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객 맞춤형 컬러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고, 컬러 전문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에 동일한 해에 업계 최초로 컬러 & 디자인 트렌드 북 <COVER ALL>을 발간했다.

NSDS(NOROO Seoul Design Studio)의 주도하에 매년 1회 발간하는 <COVER ALL>은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와 사회 현상을 입체적으로 분석·제시해 관련 업계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에는 스위스 아티스트 파비앙 오프너(Fabien Oefener)와 협업해 일본 긴자6 츠타야 서점에 커버올 런칭 이벤트 전시 <ES:SENSE>를 개최하며 NOROO의 컬러 컨텐츠 우수성을 알렸다. 2023년 '유연성(Flexibility)'을 주제로 발간한 7번째 <COVER ALL>은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2024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퍼블리싱 카테고리 본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NOROO는 다양한 아트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고객에게 의미 있는 경험과 기억을 선사하고 있다. 2017년과 2019년에는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그룹 '파우와우(POW!WOW!)'와 협업해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 'POW!WOW! X NOROO in Seoul'을 진행했다. 노루페인트의








Color Sound


COVER ALL
MOBILITY


TREND COLOR
FLEXIBILITY


MAGIC-OFF
PEELABLE PAINT



2019.04. 밀라노 디자인 위크 'TIDES'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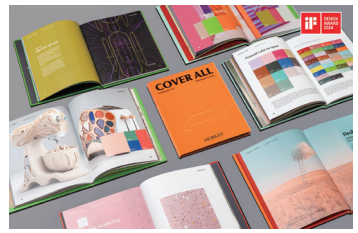
2024.04. 밀라노 디자인 위크 'Hong Chul Wonderland by Okuda San Miguel' 전시

친환경페인트, 스프레이, 마커 등을 사용해 파우와우가 제작한 벽화는 침체돼 있던 지역 분위기를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바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NOROO는 이태리 밀라노 현지에 NMDS(NOROO Milano Design Studio)를 설립하고 업계 최초로 밀라노 디자인 위크(Milano Design Week)에 전시를 선보였다. 'TIDES'를 주제로 펼쳐진 NOROO의 첫 MDW 전시는 'NOROO=문화·예술적 영감을 주는 기업'이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것은 물론 유럽 유명 매거진에 '올해 MDW에서 꼭 봐야 할 전시 Top 10'로 선정되는 성과까지 거뒀다. 이후에도 NOROO는 2023년 'Mirage', 2024년 'Hong Chul Wonderland by Okuda San Miguel'을 주제로 MDW에 연속 참가해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이 같은 환호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2020년, 2023년, 2024년 '레드닷 브랜드 & 커뮤니케이

TIP STORY.

글로벌 컬러 & 디자인 트렌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컬러 트렌드 북 〈COVER ALL〉



<COVER ALL>은 NOROO의 컬러 디자인 전문 연구소 NSDS가 발간하는 글로벌 컬러 트렌드 북이다. 2016년 '휴머니티(humanities)'를 주제로 처음 발간된 후, 매년 변화하는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와 사회 현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최신 컬러 정보와 함께 제시해 왔다.

특히, 2022년 발간한 6번째 <COVER ALL>에서는 'Better Option'을 주제로 우리의 삶과 환경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론임을 강조했고 옻칠공예가 허명욱, 오너셰프 임정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양태오 등과의 협업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2023년 발간한 7번째 <COVER ALL>은 'Flexibility'를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컬러와 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했다. 특히 '모빌리티(Mobility)' '오브젝트(Object)', '스페이스(Space)'로 주제를 세분화해 각각 3권을 한 세트로 구성, 2024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 어워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본상을 받았다.

2024년 발간한 8번째 <COVER ALL>은 'Understanding'을 주제로 최신 글로벌 디자인, 컬러 트렌드를 분석했으며, 창조의 본질은 '이해'라는 내용을 담았다.

션 디자인상'을 수상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2022년에는 업계 최초로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 서울(Frieze Seoul)'에 공식 파트너로 참가해 전시 공간 연출에 최적화된 특수 맞춤형 도료를 독점 공급했다. NOROO는 2025년까지 4년 연속 '프리즈 서울' 후원을 이어가며 문화·예술적 영감을 전달하는 브랜드의 위상을 다졌다.

NOROO의 문화예술 관련 협업은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됐다. 2022년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디즈니 100주년 기념 전시 <미키 마우스 나우 앤 퓨처>, 2023년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열린 <데이비드 호퍼: 길 위에서>, 2024년 인사 센트럴 뮤지엄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린 미피(Miffy) 70주년 탄생 기념 전시 <미피와 마법 우체통>, 2025년 국립현대미술관(MMCA)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 <향수, 고향을 그리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품 특별전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등 해마다 미술계를 대표하는 전시에 노루페인트의 기술력과 프리미엄 도료를 제공하며 아름다운 전시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NOROO의 이와 같은 아트 컬래버레이션 활동은 미술 전시에서 작품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전시 공간의 컬러임을 효과적으로 각인시켰고 NOROO가 판매하는 건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컬러에 대한 감각과 노하우, 솔루션임을 설파했다.

NOROO는 전시 이외에도 서울시·세종문화회관 등과 문화예술 ESG 사업 협력에 대한 협업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컬러와 디자인, 예술과 ESG를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창의적 영감을 촉발하고 NOROO만의 고유한 컬러 철학을 전파하며 '컬러 솔루션 전문기업'으로서의 행보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미래 소재 3HP 상용화 연구로 바이오사업 진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해 NOROO는 또 한 번 과감한 도전을 시도했다. 석유 기반(Petroleum-Based) 사업에서 바이오 기반(Bio-Based) 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주도적 역할을 한 기관은 2014년 설립된 NOROO 바이오융합연구소이다.

NOROO의 바이오사업 진출은 순환경제와 탄소중립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시기와 맞물렸다.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해온 석유화학제품이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NOROO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게 됐다.



NOROO 바이오융합연구소 전경

오랜 기간 친환경·고기능성 제품 중심의 R&D를 이어왔지만, NOROO는 보다 본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5년 부산대학교로부터 미래 소재 3HP(3-Hydroxypropionic Acid, 3-하이드록시프로피온산)• 기술을 도입해 상용화 연구개발을 시작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선정한 '미래 바이오 신물질 12가지' 중 Top 3에 선정된 물질인 3HP를 기반으로 자연분해 가능한 미래형 플라스틱 P3HP와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원료·첨가제인 E3HP를 제조·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3HP는 옥수수·팜유 등 천연자원을 원료로 바이오 공정으로 생산되는 '플랫폼 케미컬(Platform Chemical)'로 다양한 산업에 응용 가능하며, 석유 기반 물질을 대체할 고부가 미래 바이오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인체에 무해하고 지속가능하며 기존 화학물질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현재 NOROO의 3HP 상용화 연구는 P3HP와 E3HP(Solvent) 두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 먼저, 미생물 중합 반응을 통해 생산하는 P3HP는 자연환경(토양·해양)에서의 생분해성이 우수한 플라스틱으로 식품 포장

• PHP(Polymer)와 EHA(Solvent)에 접목한 3HP 상용화

PHP(Polymer)는 고분자(폴리머)를 의미하며, 긴 사슬 구조의 분자가 반복적으로 결합해 형성된 물질이다. 내열성, 내구성, 방수성 등 특정 기능을 가진 고분자가 개발되고 있다. 생활용품, 포장재,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EHA(Solvent)는 산업용 유기용제로 다양한 표면 처리와 코팅 작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이다. 페인트 도포, 코팅, 인쇄 등 다양한 공정에 활용되고 있으며 사용성이 높아 여러 재료와도 잘 섞인다. NOROO는 이를 활용한 3HP 상용화를 통해 바이오산업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재·일회용 식기뿐 아니라 상처치료용 메디컬 폼, 의료용 봉합사, 리프팅 실 등 의료제품에도 적용 가능한 고활용성 소재다.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3HP는 3HP의 에스터화·증류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친환경 용매로, 기존 산업용 용제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인정받고 있다. 인체에 무해해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으며, 친환경 세정제·페인트 용제·토양오염 정화제·식품첨가물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또한 스마트폰·전자기기·자동차 내장재 등에 적용되는 친환경 도료·코팅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며, 국내 시험기관에서 물질독성·항염증·인체적용·유해성 시험 등에서 항염증 및 보습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NOROO는 생산성 높은 균주 개발, 효율적 첨가제 발굴, 공정 최적화 등을 통해 과거 3HP 상용화의 걸림돌이었던 낮은 생산 수율을 개선하고 원가를 낮추는 성과를 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해 국내외 특허도 취득했다.

이처럼 NOROO의 3HP 상용화는 순항 중이다. 2017년 세계 최초로 5L 레벨의 Lab Scale 생산에 성공했고, 2018년에는 제조·생산 방법 관련 국내 특허 6건을 등록했다. 2020년 5톤 규모의 데모플랜트 착공 및 2022년 완공을 통해 샘플 생산과 용도 개발, 상용화를 위한 스케일업 공정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에는 친환경 바이오 물질 개발 국책과제를 수주해 포항공대·서울대 등 국내 7개 주요 대학과 함께 '해조류 바이오리파이너리 연구단'을 구성해 연구를 진행했다. 2023년에는 전담 사업단을 꾸려 본격적인 3HP 상업화에 착수했으며, 2025년 6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수출지향형 바이오산업소재 생물 제조공정 및 제품화 기술개발 국가과제를 수주, 7월에는 연세대 바이오헬스 기술지주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의료·바이오 첨단소재 융합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 기반 기술사업화, 유망 스타트업 공동 발굴·육성, ESG 기반 창업 생태계 확산,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 등 다각적 협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5년 9월에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 인프라인 '랩 센



2022.09. NOROO 바이오융합연구소에서는 3HP 상용화 연구개발과 데모플랜트를 통한 대량생산을 수행하고 있다.

TIP STORY.

미래 유망 바이오 플랫폼 물질, 3HP가 주목받는 이유는?



3HP는 미국 에너지부(DOE)가 선정한 '미래 바이오 신물질 Top 3' 중 하나다. 화학반응이 비교적 용이하고 기존 석유화학 소재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며, 100% 바이오 기반 물질이라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생·생분해가 가능하고 무독성이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 또한 장점이다.

또한 3HP는 바이오 용제, 바이오 기반 수지, 생분해 플라스틱, 탄소섬유 등 다양한 산업용 중간재로 응용될 수 있다. 다만 원가가 높고 생산 효율이 낮아 대량생산이 어려운 점이 단점이었다. NOROO는 10여 년간의 연구 끝에 공정 개선으로 원가를 낮추고 생산 효율을 높여 대량생산 가능성에 근접했다. 현재는 3HP 기반 제품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상용화 연구는 P3HP(Polymer)와 E3HP(Solvent) 중심으로 진행된다. P3HP는 토양·해양 등 자연환경에서 생분해가 용이한 플라스틱 소재로, 가공성이 좋아 일회용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를 대체할 수 있다. 생체적합성이 우수해 메디컬 폼·의료용 봉합사·리프팅 실 등 의료용 소재로의 활용도 기대된다. E3HP는 바이오 기반의 우수한 용해력을 가진 친환경 소재로, 물과 기름에 대한 상호작용 특성(친수성·소수성)을 동시에 갖추어 각종 세정제, 친환경 페인트 용제, 전자산업용 클리너 등에 적합하다. 이 외에도 배합 호환성이 높고 유연성이 탁월한 Monomer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NOROO 바이오융합연구소는 3HP 중심의 글로벌 화이트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연구 인프라 확충, 오픈 이노베이션, 스타트업 협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친화적 NOROO 기술(White-Bio)로 Global Standard Product를 제공해 보다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에 기여한다'는 비전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트럴(Lab Central)'의 요하네스 프루에하우프(Johanness Fruehauf) 박사가 안양 노루페인트 연구소를 방문해 3HP 데모플랜트를 시찰하고 설비 구성과 상용화 기술 수준을 점검했다. 그는 현장에서 "NOROO의 3HP 생산 공정 스케일업 기술은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해 보인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NOROO의 3HP 상용화 연구는 사업화 기반 마련 단계를 넘어 조기 운영 안정화 및 사업 확대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NOROO는 '화이트 바이오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세계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바이오 파운드리(Bio-Foundry) 시설 구축과 인공지능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의 상용화와 시장 선점

노루페인트 연구소는 에너지·디스플레이·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차전지와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노루페인트는 2024년 2월 이차전지의 화재 위험을 줄여주는 바인더(접착제), 몰딩제(마감제), 난연 우레탄폼 등 기능성 제품 13종과 수소연료전지·수전해 제조용 접착제 3종 등 총 16종을 출시했다.

같은 해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 'Inter Battery 2024'에 참가해 관련 제품을 공개했으며, 2025년에는 이차전지 소재 상용화에 성공해 배터리용 몰딩제, ESS용 우레탄 난연폼 등 6개 소재의 양산·납품을 진행했다. 이러한 성과는 2011년부터 이어진 전자소재 연구와 2018년 이후의 배터리·수소 연계 소재 개발 투자가 뒷받침된 결과다.

방산 분야에서도 '스텔스 도료' 개발 등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스텔스 도료는 전파 흡수율과 경량화를 동시에 구현하는 특수 도료로 항공기·무인기·함정 등에 적용 가능하며, 기존 대비 레이더 반사 저감 및 경량화 효과를 목표로 연구 중이다. 노루페인트는 2023년 10월 대한항공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국책 과제 '최신 탐지 위협 대응 무인기용 메타 구조 스텔



노루페인트 중앙연구소 전경

TIP STORY.

미래형 종합소재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한 NOROO의 고기능 첨단소재 현황은?



2024년 1월 23일, 노루페인트는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첨단화학과 스텔스 도료'를 주제로 한 전시공간을 선보였다. 노루페인트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첨단기술 기반의 'RAM-1500 스텔스 도료'는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미국 국방부 기준인 MIL-SPEC의 내열성·내식성·내염성 조건을 충족한 것은 물론,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오던 스텔스 도료의 국산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2024년 3월 6일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전시회 'Inter Battery 2024'에 참가해 페인트 기술을 응용한 고기능·고안전 소재를 대거 선보이며 수소에너지·이차전지 소재사업 진출을 본격화했다. 배터리 화재 대응에 최적화된 고내열·불연 소재를 개발, 업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은 것이다.

또 2025년 5월 14일에는 노루페인트 안양 본사에서 '2025 신기술·신제품 전시회'를 개최, '혁신소재 기술', '미래 성장동력 기술', '시장주도 기술' 등 세 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신제품을 선보였다. NOROO의 첨단 기술력과 중장기 전략을 직관적으로 풀어낸 이번 전시회에선 경량화를 극대화한 '스텔스 도료', 친환경·고성능 배터리 시장을 겨냥한 '우레탄 난연 몰딩제' 외에 '탄소 저감형 PCM 건재용 도료', 'VOC 저감형 아크릴 수지' 등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연이어 개최된 이 같은 전시회는 NOROO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기술 혁신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NOROO가 '친환경', '고기능성' 제품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구체적 증거이기 때문이다.



2024.03. ‘Inter Battery 2024’ 참가



2023.10.19. 노루페인트-대한항공 스텔스 응용소재 개발을 위한 MOU 체결

스 융합 기술’에 참여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도 MOU를 맺고 항공기 유지·보수·정비(MRO)용 실란트(Sealant) 개발에 착수했다. 이러한 방산 분야 진출은 NOROO의 미래 소재 기업 전환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친환경·고기능성 제품 및 기술개발 가속화

2010년대에 들어서 ESG경영이 기업의 필수요건으로 자리 잡으면서 NOROO의 친환경·고기능성 도료 개발은 더욱 가속화했다. 이는 시대의 흐름과 고객의 니즈, NOROO의 품질중심주의가 맞물린 결과로, 특히 기존 제품을 넘어서는 혁신적 제품과 대외적 성과가 계속 쏟아져 나와 관심을 집중시켰다.•

2015년 1월 노루비케미칼이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내스크래치성(耐scratch性)이 우수한 가죽 촉감 도료를 개발, ‘IR52장영실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4월에는 노루비케미칼의 자동차 내장재용 수성 고탄성 도료가 NEP 신제품 인증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5월 노루페인트가 선보인 ‘순&수 원터치’는 기존 2회 도장이 필요했던 일반 수성페인트와 달리 1회 도장만으로도 내구성이 부여되는 프리미엄급 도료다. 인건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데다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과 중금속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성 도료로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했다.

2018년 10월에는 업계 최초로 ‘2018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디자인 콘셉트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다. 수상작은 ‘올인원 페인트 패키지(Paint Package)’로 도료와 도색장비(트레이, 페인팅 패드 등)를 일체화시켜 디자인했으며,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실용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국내 최초 미국 USDA 인증 획득**

국내 페인트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한 이후 국내 페인트 업계에서는 고기능성과 친환경을 앞세운 제품 개발에 몰두했다. NOROO 또한 2021년 국내 최초로 미국 USDA 인증을 획득하고 친환경 페인트 시장 선점에 성공했다. 이후 2022년에는 친환경 바이오 가전용 도료 ‘BIO-HQ’를 개발해 출시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친환경 수성 자동차 보수용 도료 ‘Wet-on-Wet F/P 시스템’을 출시하는 등 기능과 환경을 고려한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특별한 기능을 부여한 기능성 도료를 대거 출시했다. 4월에는 목재 바닥보호·마감용 수성페인트 ‘순&수 우드플로어’와 지하 주차장 바닥 공사에 적합한 마감재 ‘크린폭시 라이닝 마일드’를 선보였고, 6월에는 친환경 우레탄 방수재 ‘에코 크린탄’으로 국내 방수재 시장을 공략, 업계 점유율 1위를 고수했다. 같은 달 자외선 차단 차열 페인트 ‘에너지세이버 윈도우’도 출시했다. 창문 유리에 칠하면 자외선 차단, 냉방비 절감 효과를 내는 에너지세이버 윈도우는, 특수 나노 물질로 만든 반투명 필름막이 유리 표면에 형성돼 자외선과 태양열을 차단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실험 결과 자외선 차단율 90%, 가시광선 차단율 75% 이상을 기록한 혁신적 제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월에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페인트 제품인 ‘V-가드’를 개발했다. 바이러스 전문검증기관인 KR바이오텍 질병제어연구소에서 코로나19 사멸 효과를 시험한 결과, 30분 내 99.4%가 사멸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같은 해 12월에는 ‘도시열섬현상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열제어 도료기술’ 개발로 ‘2021년 기후변화 대응 대표기술 10선’에 선정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해당 기술을 활용한 노루페인트의 ‘에너지세이버 에코 쿨루프’는 태양에서 발산하는 적외선을 효과적으로 반사하고, 열의 내부 전달을 차단해 건축물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고기능성 도료다.

2022년 4월에는 획기적 신제품을 선보였다. 노루페인트가 국내 최초로 폐자동차의 유리를 재활용한 리사이클 도료 ‘순&수 에코 리스펙트’를 출



2018.09. ‘2018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디자인 콘셉트상 수상



2014. 쿨루프 행사(사회공헌)



노루페인트의 다양한 제품들

시한 것이다. 기존 도료 대비 1.5~1.7배의 탄소 저감 효과를 발휘하며, 내오염성·항세균성·항곰팡이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같은 달 노루페인트와 노루코일코팅이 공동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 도막 내 바이오 원료를 함유한 친환경 가전제품용 도료 'BIO-HQ(Bio-High Quality)'도 출시됐다. BIO-HQ는 사탕수수나 옥수수 같은 자연 물질에서 추출한 성분을 화학적 반응을 통해 도료 필수 요소인 수지와 용제에 적용한 바이오 도료이다. 2023년 7월에는 노루페인트가 2015년 출시한 건물 외벽용 차열페인트 '에너지 세이버 쿨월'이 국내 최초로 미국 에너지 절감 도료 전문 인증기관 CRRC(Cool Roof Rating Council)로부터 'CRRC Cool Wall' 인증을 획득했다. 쿨월 인증을 받기 위해선 CRRC의 까다로운 태양 반사율, 열 방사율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NOROO의 높은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다.

노루페인트는 같은 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수용 도장 시스템 'UV-Q'도 출시했다. UV-Q 시스템은 전용 도료 'UV-Q 더블액션 Zero VOC'와 자외선 조사기 'UV-Q 듀얼라이트'로 구성된 제품으로, 크게 5개로 나뉘는 자동차 보수 공정 단계를 3개로 줄여 작업 효율을 150% 개선했다.

2024년에는 국제테니스연맹이 인증한 체육시설 하드코트용 바닥재 '노루웨이 스포츠 코트'를 선보였다. 노루웨이 스포츠 코트는 테니스 코트 외에도 다목적구장 등의 체육시설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클레이, 인조잔디 등 기존 체육시설 바닥재와 달리 도막이 견고하고 내마모성이 뛰어나 유지관리가 수월한 게 장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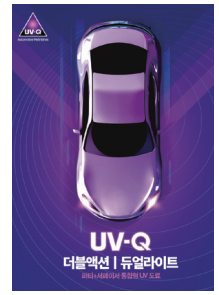
2025년 6월에는 친환경 수성 자동차 보수용 도료 'Wet-on-Wet F/P 시스템'을 출시했다. Wet-on-Wet F/P 시스템은 전처리 후 색상을 입히는 베이스 코트(Base Coat) 도료 시스템으로, 기존 대비 작업 횟수와 건조 공정을 줄여 작업자의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자회사 간 탄탄한 밸류 체인 구축

NOROO가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온 데는 자회사 간 탄탄한 밸류 체인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각자의 영역에서 독립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전문성을 발휘해 NOROO의 성장에 기여해온 것이다.

특히 NOROO의 모태라 할 수 있는 화학·유통 부문의 경우, 건축용·자동차용·PCM용·선박용·중방식용 도료·수지 등을 생산하는 도료 생산 전문기업과 생산한 도료·수지를 고객에게 배송하는 물류 전문기업 간 시너지가 상당했다. 그 중심 역할을 한 게 바로 노루페인트다. 노루페인트는 건축용·자동차 보수용·일반 공업용 도료부터 페인트 제조의 기본이 되는 수지에 이르기까지 도료 제품 전반을 생산·판매하는 NOROO의 화학·유통 부문 핵심 기업으로, 본사인 안양공장 외에 포승공장, 칠서공장 등 3개의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의 주축답게 '기술과 품질이 미래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선제적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선진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해 내실을 다지는 등 그룹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다양한 친환경·



노루페인트 자동차 보수도장 시스템 지면 광고

고기능 도료, 스텔스 도료 등을 선보이며 '미래형 종합소재 기업'으로의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노루오토코팅은 최첨단 설비를 갖춘 연구시설과 대단위 공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기능·고품질 도료를 선보이며 자동차용 도료 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최근 들어서는 그룹 내 영향력도 커지는 추세다. 2022년 9월 노루비케미칼과 합병하면서 자산 총액(2,337억 원, 2022년 말 기준)이 크게 증가해 노루페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자회사가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노루비케미칼의 사업 영역인 플라스틱용 도료는 가전·모바일뿐 아니라 자동차 내·외장 부품에도 활용되는 등 노루오토코팅의 사업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NOROO는 '경영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 아래 두 자회사 간 합병을 추진, 자동차용 도료사업을 일원화하고 글로벌 거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높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실적 역시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2024년 매출 3,916억 원, 영업이익 350억 원을 기록, 각각 전년 대비 3.3%, 14%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외에도 고품질의 PCM용 도료 전문기업인 노루코일코팅은 각종 건자재 및 가전제품에 필요한 컬러 강판용 도료를 개발·생산하고 있다. 국내 최초 초고속 코팅용 페인트, 유기피복제 등의 제품을 공급 중이며, 포항에 생산 기반을 두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노루케미칼은 연 생산 5만 톤 규모의 페인트 신공장과 연 생산 1만 4,000톤 규모의 수지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건축용·목공용·공업용·중방식용 도료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세계적 종합화학회사인 네덜란드 악조노벨(Akzo Nobel)과 합작 투자를 통해 설립한 아이피케이는 선박용·중방식용 도료를 생산 중이다. 부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미국·유럽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노루로지넷은 이들 도료 생산 전문 자회사와 고객을 하나로 잇는 역할을 한다. 동종업계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실질적 화물 공차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최첨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고객 맞춤형 물류를 실현하고 있다. 공급망을 촘촘하게 연결해 고객과의 거리를 좁히는 긴밀한 네트워크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는 셈이다. 2017년 업계 최초로 배송 시스템에 QR 시스템을 도입해 물류 효율과 속도를 높인 데 이어, 2018년에는 배송 출발 시 고객에게 발송하던 알림 문자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바꾸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2020년엔 축산물 운반업, 식품 운반업까지 개시, 물류 전문기업으로서 또다시 영역을 확장했다.

• 첨단 생산기술이 집약된 노루오토코팅 화성공장

2008년 10월 화성시 장안공단에 준공한 노루오토코팅 화성공장은 최첨단 생산설비와 최적화된 공장 설계를 도입,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배합, 분산, 조색, 포장 공정까지 4층에서 1층으로 물 흐르듯 연결되는 최첨단 자동화 공정은 노루오토코팅의 제품 품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노루오토코팅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24시간 자동 컨트롤되고 있으며, 작업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30명 안팎의 인력으로 대규모 공장 가동이 이뤄지고 있다.



노루오토코팅 화성공장 전경



자동차 보수용 도료기술 개발 현장

아시아·유럽·중동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 구축

1990년대에 본격화한 NOROO의 글로벌 시장 진출은 탄탄한 기술력에 기반한 지속적 연구개발, 적극적 마케팅,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아시아·유럽·중동에 마련한 핵심 거점들은 글로벌 맞춤형 제품 개발과 다양한 현지화 노력으로 최근 10여 년간 계속돼온 NOROO의 적극적 해외 시장 공략을 뒷받침했다.

2002년 12월 설립한 노루 도료(상해)유한공사는 NOROO의 중국 시장 연착륙을 가능케 한 현지법인이다. PCM용·공업용 도료를 비롯해 표면처리제, 수지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도료업체들과 경쟁하며 중국 내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베트남 동나이에 위치한 노루난파오도료(베트남)유한공사는 2008년 NOROO와 대만 난파오가 50:50으로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건축용·공업용·자동차 보수용 도료와 표면처리제 등을 생산하며, 베트남 시장을 넘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거점 역할도 하고 있다. 동나이 생산공장 외에 호치민과 하노이에도 영업 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이유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NOROO KOSSAN Paint는 2011년 노루페인트와 KOSSAN PAINT가 50 대 50으로 합작해 설립한 법인이다.

현지 기후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 세이버 도료와 공업용 도료 시장을 개척 중이며, 동남아시아 시장 판매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11년 설립한 NOROO KAYALAR BOYA SAN.VE TIC.A.S는 노루페인트와 터키 Kayalar Kimya사의 합작법인이자 유럽시장 진출의 전초기지로 통한다. 일반 공업용 도료로 시작해 자동차 보수용 도료까지 터키를 포함한 주변 국가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NOROO FZCO는 NOROO의 중동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다. 2012년 노루페인트가 Ahmed K Al Amoudi & Sons Co.사와 합작해 UAE·두바이에 설립한 법인으로 주력 제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다. 최근 중동 지역에 한국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노루페인트의 자동차 보수용 도료도 고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노루코일코팅이 2012년 태국에 설립한 NOROO Paint(Thailand) Co.,Ltd.는 컬러 강판 및 PCM 표면처리제 생산 법인으로, 현지 철강사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며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2014년 설립한 NOROO SHEENLAC는 인도 Sheenlac사와의 합작법인이다. 인도 자동차 보수



스마트 물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물류창고



2002.12. 노루 도료(상해)유한공사 설립

용 도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법인으로, 인도 현지 생산 및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NOROO VINA는 주로 스마트폰, 가전, 주변기기에 사용하는 고부가가치 도료 생산에 최적화한 생산 거점이다. 2014년 설립된 이래 베트남 및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NOROO는 일본 도쿄와 홍콩에 거점을 두고 활발한 영업 활동을 펼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 해외 주요 거점에 위치한 현지법인은 NOROO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소재기업'을 앞당길 토대이다.

한영재 회장의 국가품질경영대회 금탑산업훈장 수훈

NOROO의 꾸준한 친환경·고기능성 제품 개발과 품질 혁신, 해외 시장 확대, 선도적 ESG경영은 기업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금탑산업훈장 수훈으로 이어졌다. 한영재 노루홀딩스 회장이 2022년 11월 2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신기술·친환경 제품 개발로 세계 시장 개척에 앞장서며 화학산업을 선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것이다.

같은 날, 노루페인트 역시 친환경 인증 제품과 첨단기술을 집약한 고기능성 제품군 출시 등 품질향상과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도료와 'Specialty Chemical' 분야에서 적극적 연구개발 활동에 나선 점을 인정받아 16번째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한영재 회장의 이번 금탑산업훈장 수훈은, 1945년 창업한 이래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한국 도료산업의 발전을 선도해온 NOROO의 저력과 '사업보국(事業報國)'의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 기술혁신, 신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공장 자동화 등 품질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해온 NOROO의 여정에 대한 상찬(賞讚)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영재 회장은 1980년 NOROO에 입사한 후 내실 위주의 안정적 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의 확대, 기술혁신과 업종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혁신적 신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 결과 NOROO는 업계 최다인 353건의 특허등록, 국내 최초 화이트 바이오 도료의 미국 USDA 인증 등 99건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

한영재 회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품질 혁신을 위해 다 함께 중지를 모은 임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그룹 차원의 ESG경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탄소제로(Zero)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NOROO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물론, 업계 전체의 미래가치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2022.11.23. 한영재 회장, 금탑산업훈장 수훈(제48회 국가품질경영대회)

3. ESG경영 가속화로 백년기업에 이르다

ESG경영의 선도적 도입과 활성화

시대의 흐름을 앞서 예견하고 글로벌 경영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온 NOROO는, 2010년대 이후 기업의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떠오른 ESG경영 또한 빠르게 받아들였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통합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비재무적 지표로, ESG경영의 도입은 이제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NOROO는 본격적인 ESG경영 도입 이전에도 NOROO Way에 기반한 환경경영·윤리경영을 추진, 지속가능경영의 토대를 만들어왔다.• 또 보다 체계적인 ESG경영 추진을 위해 2016년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윤리규범 및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지속가능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발간해 그룹의 ESG 경영 방향성도 제시했다.

일례로 2021년 5월 발간한 노루페인트의 <2020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노루페인트는 UN SDGs가 반영된 윤리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QES(Quality, Environmental, Safety & Health Management, 품질·환경·안전) 통합경영 매뉴얼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더불어 안전보건정책 실행, 환경안전교육 실시, 에너지 절감기술 개발,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고기능성 제품 개발, 다양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 추진, 이해관계자들과의 활발한 소통 등 ESG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을 적극 실천했다.

노루페인트의 이 같은 노력은 2021년 9월 1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으로 더욱 본격화했다. 당시 노사가 함께 협의한 선언문에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 적극 동참,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목표 달성 노력, 기업의 미래가치 향상 및 지속성장 가능 기업을 위한 상호 협력, 대화와 상생의 평화적 노사관계 지속적 발전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1년 10월에는 노루홀딩스와 노루페인트가 나란히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에도 노루홀딩스와 노루페인트는 2022년부터 꾸준히 ESG평가 통합 A등급을 획득, 업계 최초로 연속 통합 A등급을 달성했다. 같은 해 11월 노루홀딩스는 NOROO의

• NOROO Way란?

'NOROO Way'는 NOROO를 창립한 한정대 선대회장의 창업정신이 담긴 '나의 조국을 위하여'라는 이념과 직업관, 정신자세 등을 이어받고 이를 새롭게 승화시킨 기업가치이다. 또한 이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 정립한 미래지향적 가치체계이기도 하다.

- 경영철학 : 세상에 없는 길, NOROO가 만드는 새로운 길
- 경영이념 : Bright Color, Smart World
- 공유가치 : 고객(매력있고 끌리는) / 사원(꿈과 행복을 만드는) / 주주(함께 성장하는)
- 사업 방침 : 균형과 효율화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핵심 역량 구축, 신사업 전개, 글로벌 전략





NOROO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간 ESG경영 활동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3월 노루홀딩스는 지속가능경영 실천 및 ESG경영 기반 확대를 위한 그룹 차원의 'ESG위원회'를 출범, ESG경영 행보를 더욱 강화했다.

또한 2023년 8월에는 '안양시 착한기업 감사패 및 ESG나눔기업패 전달식'에서 노루페인트가 'ESG나눔기업'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수상했고, 같은 달 노루홀딩스는 NOROO의 2022년 ESG 비전과 성과를 담은 <2022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024년 5월에는 '위드 ESG'에서 노루홀딩스의 친환경 바이오 소재 상업화 및 ESG 활동이 소개됐고, 같은 해 8월에는 노루페인트가 국내 페인트 업계 최초로 글로벌 친환경 소재 인증인 'ISCC(International Sustainability & Carbon Certification) PLUS'를 획득했다. ISCC PLUS 인증은 유럽연합(EU)의 재생에너지 지침(RED)을 기준으로 원료 구입부터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지속가능성과 저탄소 제품 생산 시스템을 검증하는 제도다. 노루페인트는 최대 8개월까지 소요되는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식물성 원료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기반의 스티렌(Styrene)을 활용한 친환경 아크릴 페인트 생산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이 외에도 노루페인트는 2024년 세계 최대 규모의 영국 시험·검사·인증기관 인터텍(Intertek)으로부터 '철강 리사이클 방청도료' 재활용 소재 인증(Recycled Content Verification)을 획득하는 등 자원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한편 노루페인트는 2024년 세종문화회관과 ESG 문화 예술경영 MOU를 맺는 등 문화예술 ESG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국립현대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프리즈 서울 등에서 열린 전시에 공간 연출과 안전한 관람 환경 제공을 위한 친환경·고기능성 도료를 지원한 게 대표적인 예다.

'컬러'와 '상생'을 중심에 둔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은 NOROO의 ESG경영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다. NOROO의 사회공헌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컬러 솔루션 전문기업'이라는 '업'의 특성을 살린 사회공헌활동이다. 침체된 지역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바꾸는 벽화 그리기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노루페인트를 활용해 공간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행복 나눔 프로젝트로 그동안 숱한 공간과 마을, 지역이 이 활동을 통해 새롭게 되살아났다.

2012년, 2013년 옥션과 함께 진행한 '사랑의 트랜스포머'는 낙후된 건물 외벽을 아름답게 바꿔주는 환경개선 프로젝트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고, 2014년 서울대공원·계원디자인예술대학과 함께 추진한 '아름다운 동물원 만들기' 역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19년에는 침체된 이태원의 상권 회복을 위해 경리단길 벽면에 다양한 벽화를 채워 넣은 '노루페인트 X 경리단길 상생 프로젝트'가 TBS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글로벌 스트리트 아트 그룹 '파우와우'와 함께 2019년에 진행한 성수동 벽화 작품 설치 역시 컬러로 거리를 아름답게 물들인 대표적인 예다. 2021년에는 독립기념관·단국대학교 봉사단과 협력해 천안 독립기념관 주출입구 다리에 독립운동, 무궁화, 태극기, 하회탈, 한복, 태권도 등 나라 사랑을 주제로 한 벽화를 조성했다.

아울러 포항시가 2019년부터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다무포 하얀 마을 만들기 사업'과 대한적십자사가 2021년부터 진행하는 '지역사회 환경정비 사업'에도 페인트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에는 동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의 광주시 양벌리 지하차도 경관개선 벽화 그리기 활동 지원을 통해 범죄 예방 및 안전에도 기여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전시 공간 연출에도 페인트를 후원, 지역주민



2019.09. '파우와우'와 함께한 서울 성수동 벽화작품(일부)



2020.02. 포승공장 내 노루 기술교육원 교육 현장

과 관람객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외에도 노루페인트는 임직원 자원봉사단과 함께 보육원, 장애인·저소득층 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에 꾸준히 벽화 그리기와 시설물 재도장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업'을 기반한 사회공헌활동도 있다. 노루페인트가 2020년 7월 포승공장 내 설립한 '노루 기술교육원'의 도장교육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노루기술교육원은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국내 도료·도장 산업 관련 협약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현장훈련, 핵심직무훈련, 고숙련훈련 등의 교육과정을 무료로 운영했다. 당시 개설된 과정은 자동차 보수 도장과정, 수성페인트 기초과정·심화과정, 자동차 보수용 도료 조색 과정 등 4개 과정이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 경우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의 거버넌스 협약을 통해 효과와 파급력을 높여 나갔는데, 대표적인 예가 노루페인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십년후연구소, 서울시·부산시·포항시 등과 MOU를 체결해 진행하고 있는 '쿨루프 캠페인'이다. 2015년부터 폭염 취약 주택의 여름나기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물



차열 페인트를 통해 에너지 절감을 가져오는 '쿨루프 캠페인'

옥상에 차열페인트인 '에너지세이버 쿨루프 수성페인트'를 지원하고 있다.

노루페인트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14개 지역본부에 벽화 제작을 위한 페인트 전량을 지원, 매년 1만 건 이상 일어나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특히 보행량이 많은 곳에는 교통안전 홍보 벽화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는 '노란 발자국'과 '스쿨존 지킴이 옐로카펫'을 조성,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4월 한영재 회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기도 했다.

또한 노루페인트는 2016년부터 법무부와 셉테드(CPTED) 사업 MOU를 맺고 전국 30여 개 지역에 친환경 페인트를 지원, 범죄 취약지역의 미관을 개선했다. 셉테드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줄임말로 환경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노루페인트는 이 셉테드 사업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제 3회 범죄예방대상(법무부 주관)에서 국무총리 정부포상을, 2023년 제 7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경찰청 주관)에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노루페인트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행사를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생활환경 개선을 포함한 불우이웃돕기, 꽃길조성사업, 체육대회, 김장·연탄봉사는 물론, 노인정 지원, 하천 정화, 월급 끝전 모으기 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들도 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노루오토코팅, 더기반 등 관계사들 역시 화성지역 소외계층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안성지역 보육원에 직접 재배한 작물을 전달하는 등 각 사가 위치한 지



2020.12.01. 한영재 회장, 제21회 메세나대상 메세나인 수상



2021.06. 법무부 '셉테드' 사업 지원으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역사회와 연계해 현지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사회공헌활동도 점차 확대해나가는 중이다. 노루페인트는 2016년 베트남 땀따잉 벽화마을 조성사업에 페인트를 후원, 작은 어촌 마을 땀따잉을 주말에만 2,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유명 관광지로 변화시켰고, 이를 계기로 땀따잉 마을은 2017년 '아시아 도시 경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을 맞아 베트남 하노이 호안키엔 예술거리 조성사업에 페인트를 후원했다. 또 우간다 학교의 노후화된 칠판을 교체하는 프로젝트에도 고품질의 팬톤 칠판페인트를 지원하며 교육 환경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창립 80주년을 맞은 NOROO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길

2025년은 NOROO가 창업 80주년을 맞은 해이다. 한영재 회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그룹 경영지표를 '혁신 NOROO, 도약하는 100년!'으로 제시하며, 세 가지 핵심목표의 추진을 강조했다.

첫째, 미래 핵심기술을 통한 지속성장동력의 발굴과 기업경쟁력 강화, 둘째, 내실경영을 통한 안정적 목표 달성과 재무 건전성 유지, 셋째,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중심에 둔 ESG 전략 실현과 가치의 내재화다. 이는 지난 80년의 성취를 기반으로 새로운 100년, 200년을 만들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더기반, 기반테크 중심의 종자사업과 농생명사업, 석유화학 기반에서 바이오 기반으로의 전환을 주도할 차세대 소재 3HP 중심의 바이오사업은 NOROO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5년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으로 2025년 0.8% 성장에, 2026년은 미국 관세인상 등의 여파로 1.6% 성장에 머무를 전망이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역시 2025년과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각각 3.0%, 3.1%로 전망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이전(2011~2019년)의 평균 성장률 3.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날로 심화되는 추세다. 이는 기업들 역시 당분간 고전(苦戰)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NOROO는 1945년 창업한 이래 숱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장해왔다. 80년에 걸쳐 축적해온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고객의 삶을 다채롭게 물들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컬러 솔루션 전문기업'으로의 변화를 이끌었고, 과감한 도전정신에 기반한 유연성과 실행력으로 선제적 투자를 감행, '첨단 소재 기반의 고부가 기술기업'으로의 도약을 실현해냈다.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친환경 제품개발로 탄소중립·순환경제를 앞당기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며, 지배구조 개선으로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ESG경영 행보도 계속해 왔다. 앞서 준비하고 투자하며 기반을 다져온 농생명사업과 바이오, 첨단소재사업 역시 이제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매출 또한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약 1조 316억 원이었던 노루홀딩스의 연결 매출액은, 2023년 1조 2,244억 원, 2024년 1조 2,478억 원으로 늘어났고, 주력 자회사인 노루페인트 역시 2022년 6,678억 원, 2023년 6,892억 원, 2024년 6,908억 원의 매출을 기록, 점진적 상승세를 나타냈다. 영업이익도 2022년 181억 원에서 2024년 272억 원으로 1.5배가량 늘어났다. 이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내수 위축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NOROO가 내실 있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0년을 이어온 NOROO의 경쟁력은 NOROO의 미래지향적 가치체계인 NOROO Way에 기반한다. 창업정신인 '나의 조국을 위하여'를 기억하고, '세상에 없는 길, NOROO가 만드는 새로운 길'이란 경영철학을 마음에 새기며, 'Bright Color, Smart World'의 경영이념을 실천해 온 지난 80년의 여정은, 이제 보다 나은 내일, 지속가능한 미래로 향하고 있다. "NOROO는 이제 겨우 80년밖에 되지 않았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강조한 한영재 회장의 말처럼, 석유 기반(Petroleum-Based) 사업에서 바이오 기반(Bio-Based) 사업으로의 변화를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소재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석유화학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창립 80주년을 맞은 NOROO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영속기업으로 나아가는 길

NOROO의 지난 80년은 석유 기반(Petroleum-Based)의 종합정밀화학기업으로서 축적해온 기술과 신뢰의 역사였다. 건축, 산업, 생활 전반에 필요한 도료와 소재를 공급하며 쌓아온 품질 경쟁력은 오늘날의 NOROO를 만든 핵심 자산이 되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 기존의 성공 방식만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NOROO는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80년의 기술 축적의 깊이를 통해 100년을 향해 나아가다

NOROO의 경영철학은 '세상에 없는 길, NOROO가 만드는 새로운 길'이다. 실제로 NOROO는 지난 80년간 창업정신인 '나의 조국을 위하여'를 토대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거듭하며 도료업계에 새로운 길을 제시해 왔다. NOROO가 보유한 숱한 국내 최초의 기록들과 총 492건(국내 427건, 해외 55건, 2025년 누적 기준)에 달하는 발명특허와 인증 수가 이를 증명한다.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환경 규제 강화는 화학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NOROO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위기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 구조를 넘어 지속가능한 친환경 바이오 기반 화학사업을 전략적 핵심 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 다각화를 넘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재정의하는 담대한 선택이었다.

NOROO가 추구하는 '미래로 건너가기'는 기존의 강점인 코팅 및 소재 기술력에 바이오 기반 원료와 친환경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바이오 기반(Bio-Based) 소재로의 확장은 화석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제품의 전 생애 주기에서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도료·소재 산업에 지속가능성을 더하는 이러한 시도는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경쟁력을 축적하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여,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창립 80주년은 과거를 기념하는 시간인 동시에 새로운 8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다. NOROO는 석유화학을 넘어 친환경 바이오 기반 화학사업으로 확장해가는 여정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그 역할을 이어갈 것이다.



도전과 혁신, 창조의 NOROO 80년

1940~1950's

1945.11.01.	대한오브세트잉크제조공사 창업
1945.12.	대한오브세트잉크제조공사, 지폐용 인쇄잉크 개발, 조선은행권과 교과서 등 대한오브세트잉크로 인쇄
1950.04.09.	대성목재 부지(회현동 35-5번지 대지 31.20평과 35-10번지 대지 16.20평) 매입, 공장 확장(총 대지 87.60평, 총 건평 63.50평)
1951.04.	한정대 사장, 재무부 직할 인쇄공장 기술촉탁으로 선임
1951.09.	한정대 사장, 지폐용 인쇄잉크 공급 공로로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감사장 수령
1952.08.26.	주식회사 대한잉크조선공사 설립
1953.	한정대 사장, 유럽 및 미국 업계 탐방
1956.01.12.	대한잉크조선공사, 대한잉크제조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56.01.	업계 최초로 연구실 설치
1956.05.	문래동공장 준공
1957.04.	국내 최초로 미연방규격도료 생산
1957.08.07.	노루표 상표 등록
1959.02.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4가 44번지로 본점 이전
1959.10.31.	한정대 사장, 한국인쇄잉크공업협회 회장에 피선

1960~1970's

1962.01.	업계 최초로 홍콩 등 동남아시아에 인쇄잉크 수출
1962.03.20.	한정대 사장,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에 피선
1963.01.12.	을지로 사옥 준공
1963.01.20.	대한잉크제조주식회사, 대한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63.11.25.	'해외 수출 우량 국산품 품평회'에서 인쇄잉크 및 도료 부문 상공부장관상 수상
1967.10.17.	(주)대한조화공업사 설립
1973.06.29.	업계 최초로 기업공개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
1974.11.30.	제11회 수출의 날 3년 연속 대통령 수출공로상 및 동탑산업훈장 수상
1976.04.01.	안양공장 준공
1976.04.01.	기술연구소 신설
1976.04.10.	본점 이전(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615번지)
1976.11.30.	제13회 수출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1977.01.	을지로 본사에서 전 부서 안양으로 이전(판매부서 제외)
1977.11.30.	제14회 수출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
1977.12.31.	연간 매출 100억 원 돌파

1980~1990's

1980.10.21.	대한인터내셔날페인트(주) 합작 설립 <(주)아이피케이>
1986.02.03.	기술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인가
1986.11.01.	안양공장에 자동차용 도료 및 PCM 생산을 위한 신공장 준공
1987.08.22.	노동조합 설립
1987.	업계 최초로 색채연구실 개설 <현 NSDS(노루서울디자인스튜디오), 2019년 명칭 변경>
1988.12.01.	한정호 사장, 부회장에 취임, 한영재 부사장, 사장에 취임
1989.02.28.	대한잉크페인트제조주식회사, 대한페인트·잉크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89.04.03.	DPI America Inc. 개설
1989.07.22.	켐코 설립 <공시자료 기준: 1989.07.21. 현 (주)노루케미칼>
1990.06.	대한비케미칼(주) 설립 <(주)노루비케미칼>
1991.07.02.	(주)대연 설립 <현 (주)노루로지넷>
1993.07.01.	'1993 종합생산성대상' 대통령상 수상
1994.02.	디아이티 설립
1994.04.01.	잉크사업부를 대한잉크주식회사로 분사
1995.08.11.	칠서공단(지방산업단지) 페인트공장 기공
1995.12.14.	(주)대한자동차도료 합작 설립 <공시자료 기준: 1995.12.14. 현 (주)노루오토코팅>
1996.07.15.	중국 자금성 도료 수출
1997.03.28.	PCM(착색아연도강판) 도료 생산 포항분공장 준공
1997.09.01.	통계의 날 대통령상 수상
1997.09.26.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1998.11.	대한잉크(주), 대한잉크화학(주)으로 상호 변경
1998.11.22.	창업주 한정대 회장 영면
1999.03.	서울사무소 이전(서울시 중구 을지로 118-8)
1999.03.	최대 주주 변경(변경 전: 한정대, 변경 후: 한영재)
1999.12.27.	(주)대한코일코팅 설립 <현 (주)노루코일코팅>

2000's

2000.01.	한영재 회장 취임
2000.11.01.	대한페인트·잉크주식회사를 (주)디피아이(DPI CO.,LTD.)로 상호 변경
2000.12.21.	에프코트노벨(주) 설립
2001.10.24.	'제1회 한국 디자인 경영대상' 우수상 수상
2001.11.07.	도료업계 최초 '전국품질분임조대회' 대통령상 금상 수상(제27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한국표준협회)
2002.08.16.	국가품질경쟁력 우수 50대 기업 선정
2002.09.	대한인터내셔날페인트 분체사업부 분리, (주)인터폰(대한악조노벨분체도료(주)) 설립
2002.10.	대한인터내셔날페인트, (주)아이피케이로 상호 변경
2002.11.	'우수 KS업체 대통령상' 단체 부문 수상(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2.12.18.	중국 현지법인 득채(상해)도료유한공사 설립 <현 노루도료(상해)유한공사>
2003.07.02.	산업재해예방 노동부 장관 단체표창 수상
2003.10.	2년 연속 품질경쟁력 50대 기업 선정
2004.07.	3년 연속 품질경쟁력 50대 기업 선정
2005.04.29.	한영재 회장, 근로자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훈
2005.11.	노루(NOROO) 브랜드 심벌 및 로고 변경
2005.11.	4년 연속 국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
2006.05.	디피아이의 새로운 브랜드 '노루페인트' 발표(창립 60주년 기념 브랜드 세계화 기념)
2006.06.02.	지주회사 출범 <(주)디피아이홀딩스(분할존속법인) 및 사업회사 (주)노루페인트(분할신설법인) 출범>
2006.06.12.	대한비케미칼, 자회사 북경법인을 중국 북경에 설립
2006.07.03.	(주)노루페인트, 디피아이홀딩스로부터 회사 분할 후 재상장
2006.08.	(주)노루페인트, 'KS-QEI' 1위 수상(한국표준협회)
2006.11.29.	(주)노루페인트,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5년 연속 선정(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7.01.02.	대한비케미칼, 자회사 인도법인을 인도 첸나이에 설립
2007.02.23.	'한국노사협력대상' 중견·중소기업 부문 수상(한국경영자총협회)
2007.03.23.	(주)대한비케미칼, 천안 백석공단 공장 준공
2007.04.01.	(주)대한비케미칼, 자회사 체코법인을 체코 오스트라바에 설립
2007.06.29.	(주)디피아이홀딩스 해외(홍콩)현지 자회사 설립<NOROO Holdings(H.K.) Co., Ltd.>
2007.07.	(주)노루페인트, 2년 연속 'KS-QEI' 수상(한국표준협회)
2007.08.16.	DAC(SHANGHAI) CO.,LTD. 설립(자동차 도료의 제조 및 판매)
2007.11.07.	(주)노루페인트,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6년 연속 선정(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8.04.08.	NOROO그룹, 광저우복전노루도료유한공사 <廣州福田納路塗料有限公司; NOROO-Futian Paint(Guangzhou) Co. Ltd> 설립
2008.04.15.	(주)노루페인트, 포승공장 준공식
2008.07.	(주)노루페인트, 3년 연속 'KS-QEI' 1위 기업 선정(한국표준협회)
2008.10.	(주)DAC, 첨단설비의 화성공장(외국인투자기업단지) 준공
2008.10.29.	(주)노루페인트, 8년차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2008.11.19.	(주)노루페인트, '국가품질상(환경경영)'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지식경제부·한국표준협회)
2009.09.01.	(주)대한비케미칼, 자회사 미국법인 설립
2009.11.01.	(주)씨케이, (주)노루케미칼로 사명 변경
2009.11.24.	(주)디알씨, (주)노루알앤씨로 사명 변경
2009.12.	(주)대한코일코팅, (주)노루코일코팅으로 사명 변경
2009.12.28.	(주)대연, (주)노루로지넷으로 사명 변경

2010's

2010.01.01.	(주)노루코일코팅, 디피아이홀딩스 표면처리연구팀 흡수, 노루코일코팅연구소 설립
2010.01.	그룹사 사명 및 로고 'NOROO'로 CI 통합 작업 실시
2010.01.	노루홀딩스 그룹사 사명 및 로고 'NOROO'로 통합 작업 실시
2010.03.19.	(주)디피아이홀딩스, (주)노루홀딩스로 사명 변경
2010.05.01.	NOROO그룹, 계열사 사명 변경 <대한비케미칼(주) → (주)노루비케미칼 / (주)DAC → (주)노루오토코팅>
2010.10.20.	(주)노루페인트, 9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2011.07.	(주)노루페인트, 터키 합작사 NOROO KAYALAR PAINT Co., Ltd. 설립
2011.08.	(주)노루페인트, 말레이시아 합작사 NOROO KOSSAN Paint Sdn. Bhd 설립
2011.12.03.	(주)노루페인트, 10년 연속 지식경제부장관 표창(품질경쟁력 우수상) 수상
2012.04.	(주)노루코일코팅 태국법인 NOROOPAINT(THAILAND) Co.,Ltd. 설립
2012.06.11.	중국 '강소화윤화공유한공사'와 '노루화윤신재료유한공사' 합작법인 설립
2012.06.20.	베트남법인 NOROO Vina Co.,Ltd. 설립
2012.10.	(주)노루페인트, '2013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 개최
2012.11.	(주)노루페인트, 11년 연속 국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
2012.11.09.	(주)노루코일코팅, 태국법인 설립

2012.12.	(주)노루페인트, NOROO FZCO 설립
2013.08.22.	(주)노루페인트, 인도 SHEENLAC PAINT와 합작 체결 <NOROO-SHEENLAC Coatings(India) Pvt.>
2013.11.28.	(주)노루페인트, 한국표준협회 명예의 전당 헌정(품질경쟁력 우수기업 12년 연속 선정, 선정패 수상)
2013.12.	(주)노루홀딩스, 싱가포르사무소 개소
2014.09.01.	(주)노루비케미칼, 자회사 브라질법인 설립
2014.10.27.	(주)노루비케미칼, 자회사 염성제조법인 설립(중국 염성)
2014.12.10.	(주)노루페인트, '2015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 개최
2015.01.14.	(주)노루비케미칼, 내스크래치성이 우수한 가죽 촉감 도료 '장영실상' 수상
2015.07.	(주)노루비케미칼, 중국 염성법인 공장 준공
2015.07.23.	(주)더기반 설립 <현 농업회사법인 (주)더기반, 노루홀딩스 편입>
2015.12.10.	NOROO그룹, '2016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 개최
2016.11.16.	(주)노루페인트, 12년 연속(총 14회)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2016.12.09.	(주)노루페인트, '2017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 개최
2017.	(주)노루페인트 포승공장 무재해 7배 달성 인증패 수상 (무재해 달성 기간: 2008.05.21~2016.09.30, 760일+316,000시간)
2017.02.15.	(주)노루페인트, '제14회 한국윤리경영대상' 환경경영 부문 대상 수상(신산업경영원·한국윤리경영대상 심사위원회)
2017.05.08.	(주)노루페인트 안양 물류창고 준공
2017.09.	NOROO Holdings(H.K.) CO., Ltd. 홍콩 사무실 이전 / NOROO Holdings(H.K.) CO., Ltd. Singapore Office 개설
2017.09.25.	(주)노루페인트 NPCI, DIC 2018-19 아시아 컬러 트렌드 세미나 개최
2017.10.25.	NOROO그룹, 더기반 안성 R&D단지 준공(국내 최대 규모 농생명 연구 클러스터)
2017.11.16.	NOROO그룹, '2018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 개최
2018.01.05.	(주)노루케미칼, 무재해 8배 달성 인증패 수상(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2017.11.08, 총 2,968일 기록)
2018.02.28.	농업회사법인 (주)더기반 자회사 태국법인 The Kiban(Thailand) Co.,Ltd. 설립
2018.10.02.	2018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dot Design Award)'에서 디자인 컨셉상(Design Concept Award) 수상 <수상작: 올인원 페인트 패키지(All-in-one paint package)>
2018.11.15.	NOROO그룹, '2019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 개최
2018.12.21.	NOROO HOLDINGS SINGAPORE PTE. LTD. 설립(해외투자 및 지주사업)
2019.04.15.	노루기반, (주)기반테크로 사명 변경
2019.11.13.	(주)노루페인트,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부문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주최, 한국표준협회 주관)
2019.12.05.	NOROO그룹, '2020 NOROO International Color Trend Show' 개최

2020's

2020.10.15.	노루 바이오융합연구소 친환경 바이오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성공 <3HP(3- Hydroxypropionic acid, 3-하이드록시 프로피온산)>
2020.12.01.	한영재 회장, '2020 메세나대상' 메세나인상(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
2020.12.08.	(주)더기반, 제57회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21.05.	(주)더기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 프로젝트 진행(라오스)
2021.09.16.	(주)노루페인트,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 진행
2021.10.	(주)노루홀딩스와 (주)노루페인트, ESG평가 A+등급 획득
2021.12.22.	(주)노루페인트, 기후변화 대응 기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2022.10.26.	(주)노루페인트,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경찰청장 표창 수상(범죄예방 셉테드(CPTED) 부문)
2022.11.10.	(주)노루오토코팅, (주)노루비케미칼 흡수 합병
2022.11.23.	(주)노루홀딩스 한영재 회장, 국가품질경영대회 금탑산업훈장 수훈
2022.11.25.	(주)더기반, '2022년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 수출액 최고 기업 선정
2022.12.05.	(주)더기반, 제59회 무역의 날 '3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22.12.07.	(주)노루홀딩스와 노루페인트, 한국ESG기준원 ESG 평가 2년 연속 '통합 A등급' 획득
2022.12.22.	2022 농기자재 국제워크숍 대상 수상(농림축산식품부)
2023.03.22.	(주)노루홀딩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ESG위원회 출범
2023.08.30.	(주)노루페인트, 안양시 주관 착한기업 선정 및 감사패 수상(안양시 착한기업 감사패 및 ESG나눔기업패 전달식)
2023.11.10.	(주)노루페인트,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획득
2023.11.15.	(주)노루홀딩스,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3년 연속 '종합 A등급' 획득
2023.12.05.	(주)더기반, 제60회 무역의 날 '5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23.12.19.	(주)더기반, '케이푸드플러스(K-FOOD+) 수출탑' 우수상 수상
2024.11.04.	(주)노루페인트, 한국ESG평가 '통합 A등급' 획득
2025.04.14.	(주)더기반,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2025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선정
2025.11.04.	(주)노루페인트, 2025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
2025.11.21.	(주)노루페인트, 제51회 국가품질경영대회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2025.11.26.	(주)노루페인트, '2025년 PSM운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2025.12.01.	(주)노루페인트, 한국ESG평가 '통합 A등급' 획득
2025.12.05.	(주)더기반, 제62회 무역의 날 '7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25.12.23.	(주)더기반, '케이푸드플러스(K-FOOD+)수출탑' 우수상 수상

편찬 후기

NOROO는 1990년 <대한페인트·잉크 45년사>를 시작으로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디피아이 60년사>, <노루 70년사> 등 창립기념일에 맞춰 꾸준히 역사 기록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나의 조국을 위하여: NOROO 80년의 記錄>을 제작함에 앞서, 우리 편찬실무진은 과거에 발간된 사사를 재차 살펴보며 창업정신인 '사업보국(事業報國)'을 실천해온 NOROO의 발자취와 영광스러운 성과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선배 임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며, NOROO의 80년을 다시 바라보는 뜻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조국을 위하여: NOROO 80년의 記錄>은 2015년 이후 NOROO가 보여준 커다란 변화와 도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최근 10년간 NOROO는 농생명사업 진출과 바이오 기반 화학기업으로의 변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백년기업'으로 향하는 지속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NOROO의 전략적 선택이자 미래 비전의 실현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실무진은 과거의 역사를 압축하고, 최근의 변화와 미래지향적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한 구성으로 80년사를 기획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편찬방식이 과거의 역사를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생략된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주요 자료는 '온라인 역사관'을 통해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NOROO의 구성원과 더 많은 사람들이 책자와 함께 디지털 공간에서도 NOROO의 전통과 역사를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나의 조국을 위하여: NOROO 80년의 記錄>이 단순히 과거의 성과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가올 100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과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현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비롯해 자료 제공, 촬영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각 사의 임직원 여러분과 협력사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2월

NOROO 80년사 편찬실무진 일동

나의 조국을 위하여

NOROO 80년의 記錄
1945 - 2025

발행인 한영재

발행처 (주)노루홀딩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www.norooholdings.com

기획 제작 (주)사사연 (02-569-4409)
www.sasayeon.com

인쇄일 2026년 2월 5일

발행일 2026년 2월 25일

Published by NOROO Holdings in Korea

Copyright© 2026 by NOROO Holdings.

• 이 책의 저작권과 판권은 ㈜노루홀딩스에게 있습니다.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와 무단 복제, 전송,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 책자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인용과 발췌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루홀딩스의 동의 및 수락이 필요합니다.